

## 제2회

###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요즘들어서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농업에 대한 교육과 40세미만의 젊은층을 농업에 종사할수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의 교육계획과 작물관리의 방향을 잡고 남편과 젊은부부가 정말 농업에 종사할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다른젊은 부부에게도 상담도 해줄수 있다라는 인식도 심어 줘야겠다는 자부감도 들었습니다.

**귀농부문 최우수상**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  
노경진



어머니들 살아생전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 의령 의병박물관에서 '인생전시회'를 열어드렸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살기 좋은 오늘로 만들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나만의 효도를 해 드렸다. 자녀들이 어머니들의 인생전시회에 참석하여 추억의 시절들을 되돌아보며 딸로 아들로 며느리로 어머니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일반부문 최우수상**  
감곡 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  
성의정



주말이면 친구들과 노는 대신 농사를 도와야 했고 방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렇지만 주말에, 방학에 부모님을 도우면서 나는 차츰 성장해나갔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도시로 학교를 보내주시는데 감사했고, 시골에서의 삶이 나와 잘 맞았는지 나는 차츰 건강해져갔다.

**청년·다문화부문 최우수상**  
27살, 농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나는 청춘 농부다!  
강보람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

나는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바람 속에도 꽃은 피어나고

그를 사랑하게 된 아줌마의 농촌생활 고군분투기

대문 앞으로 찾아온 마음

감곡 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

아! 햇살 좋은 농장

18년 초보 농사꾼과 시골생활 전문가

황금 들에서 다시

옥은 제가 먹을게요

27살, 농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나는 청춘 농부다!

내 나이 열아홉, 여성 농업인을 꿈꾸다

넌 할 수 있어!

순창에서 피어난 농부 아가씨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시골 언니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생활 이야기로  
즐거워주세요

# CONTENTS

## 심사평



<b>최우수상</b>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	노경진	12
<b>우수상</b>		
나는 농사꾼입니다	배정숙	21
농사꾼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최은정	29
<b>장려상</b>		
바람 속에도 꽃은 피어나고	김미숙	38
그를 사랑하게 된 아줌마의 농촌생활	고군분투기 박호순	47
대문 앞으로 찾아온 마음	정예진	55



<b>최우수상</b>		
감곡 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	성의정	66
<b>우수상</b>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	이정어	75
야! 햇살 좋은 농장	최태필	84



**장려상**

18년 초보 농사꾼과 시골생활 전문가 박선녀	91
황금 뜰에서 다시 이기순	99
욕은 제가 먹을게요 전경령	107



**최우수상**

27살. 농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나는 청춘 농부다 강보람	118
-----------------------------------	-----

**우수상**

내 나이 열아홉. 여성 농업인을 꿈꾸다 손다원	131
년 할 수 있어! 이수경(다문화)	140

**장려상**

순창에서 피어난 농부 아가씨 안훈경	148
토마토가 빨강계 익으면 임주현	156
시골 언니 함은미	164



## 우리 농촌이 젊어지고 있다



심사위원장 반숙자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문예활동을 장려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 2018년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사가 주관하여 성황을 이뤘다. 응모작도 풍성하고 작품의 수준도 높아져서 심사자의 기쁨이 컸다.

여성농업인의 생생한 삶을 이야기한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응모작 99편 작품 가운데 43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심사기준은 체험의 진정성과 문예의 형상화 그리고 농촌여성으로서의 자긍심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 귀농 여성농업인, 청년 여성

농업인 등 세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 한 편, 우수상 두 편, 장려상 세 편, 총 18편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뚜렷한 변화는 작품량도 늘었지만 질적인 향상과 치열성이다. 각자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도전하고 실패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끌하게 나아가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키는 모습들이 감동을 주었다. 특히 청년여성농업인들의 수기를 통하여 우리 농촌의 희망을 보았다는 점이다. 분명 우리 농촌은 젊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농업인 부문에서는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많고 진솔성이 강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땀과 사랑으로 직조해 낸 농촌여성만의 삶이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한 몸으로 농부, 며느리, 아내, 어머니의 역할까지 해 내느라 종종걸음 친 삶의 애환이 잘 나타났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오랜 세월 성실하게 산 끝에 마침내 다복한 삶을 누리게 된 글이 많았다. 좋은 작품이 많았지만 가려 뽑아야 하는 일이 아쉬웠다.

여성농업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은 '감곡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를 선정했다. 대기업을 다니며 독신으로 살겠하던 주인공은 뜻밖에도 농촌총각에게 빠져든다. 결혼 한 뒤에 남편에게 빛이

5000만원이 있고 땅은 300평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난한 집 막내며느리가 맏며느리 역할까지 다하고 한우로 가정 경제를 일으키고 마을 새마을 지도자와 이장을 하면서 마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낸다. 특히 의령군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공동거주제를 마을로 유치시킨 점을 높이 샀다.

귀농여성농업인 부문의 수기에서는 낯선 곳에서 도전하고 고전하며 끈질기게 일궈내는 삶의 순간순간을 잘 포착하여 진한 여운을 남겼다. 귀촌의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농촌의 인심에 자신을 바꿔가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다. 귀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겠으며 마을사람과 동화되는 이 분들이 노후되는 농촌을 재건하는 과정이 잘 나타났다.

귀농부문의 최우수상은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을 선정했다. 주인공은 시골농부와 결혼으로 귀농하여 3년차를 살고 있는 35세 새댁이다. 파프리카를 키우며 선진농법으로 컴퓨터에 환경제어와 연동을 시켜 모든 온실을 자동제어로 감지하는 시스템으로 선진 농업을 구현하고 있다.

미니 파프리카를 경작하여 일본으로 수출하고 1만불수출탑에 선정되는 등 파프리카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자세도 믿음

직했다.

최우수상과 경합했던 '나는 농사꾼입니다'를 언급하면 57세의 나이로 제주에 내려가 황무지 같던 돌밭을 일구어 감귤농장을 일궈낸 억척귀농인 이야기다. 끊임없이 공부하며 자연재해와 싸우며 '한라뜰'이라는 농장을 일구고 마침내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전국대표과일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것이다. 이 농부의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소신에 찬 한마디가 오래 여운을 남긴다.

청년여성농업인 부문의 수기에서는 진취적이고 표현력이 뛰어난 작품이 많아 생생함이 잘 전달되었다. 농사도 잘 짓고 가공도 하며, 판매도 적극적으로 한다. 농업농촌을 소재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한다. 1차 산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6차 산업에도 뛰어드는 적극성도 보여준다. 한편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작품도 마음을 잡았다.

청년 여성농업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은 '27살 농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나는 청춘 농부다'를 선정했다. 어린 시절을 아토피로 고생하며 보낸 주인공은 귀농한 부모님을 따라 김제로 가서 살며 자연스럽게 농부의 길로 든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끌고구마를 재

배하는가하면 포장박스도 핵가족을 겨냥해 3kg로 바꾸어 뜨거운 반응을 받으며 판매한다. 가락동 시장에서 경매 최고가를 받아 우수한 고구마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 마침내 수출까지 하게 되었으나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나 큰 손해를 본다.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부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이다. 본인도 먼저 이 길을 개척해 후배농부들이 뒤따라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 진취적이다.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울어본 경험이 있어서일까. 고구마 심는 기계를 사 놓고도 쓰지 못한다. 그동안 일해 준 이웃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 미안해 감행하지 못하는 휴머니티가 빛나는 작품이다.

특기할 것은 우수상에 선정된 다문화여성 농업인의 수기 '년 할 수 있어'라는 다문화 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시대에 많은 희망과 가능성을 준 작품이다. 한글로 쓴 글임에도 표현력이 좋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 잘 나타났다.

글 한편을 쓰기 위해 많은 시간 생각하고 되돌아보고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을 참가자 여러분의 노고와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낸다. 입상자 수가 한정돼 있어 수상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다음 기회를 약속하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 드린다.

1. 제목은 그 글의 얼굴이다. 너무 긴 제목은 내용의 밀도를 떨어뜨린다. 또한 얼굴 없는 글은 없다. 무제나 제목 없이 쓰는 것은 주의하기 바란다.

2. 수기는 문학작품과 다르다. 사유보다는 사실의 기록이 앞차야 성공한다.

3. 기록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꾸준한 글쓰기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를 응원한다.

4.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육하원칙이 글의 흐름에 들어있어야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글이 된다.

심사위원장 수필가 반숙자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 귀농부문 |



### 최우수상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  
노경진

### 우수상

나는 농사꾼입니다  
배정숙  
농사꾼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최은정

### 장려상

바람 속에도 꽃은 피어나고  
김미숙  
그를 사랑하게 된 아줌마의 농촌생활 고군분투기  
박호순  
대문 앞으로 찾아온 마음  
정예진



## 파프리카와 나의 일생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농부와 결혼3년차이고, 장군같은 아들을 둔 35세 새댁입니다.

하루하루의 나의 신혼일상 생활을 즐기며 친구들과 자식이야기 하며 커피한잔의 여유를 부리며 지내다가 어느순간 나의 일상생활은 파프리카를 키우고 열매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밀양 초동면 신호리에서 남편과 파프리카를 키우고있습니다.

파프리카는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먹을때만 사고 간단한 요리 레시피에 적용시켜 남편을 즐겁게 해왔지만 제가 직접 키워서 수출과 마트에 나가는 생각은 한번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대농을 꿈꾸며 하루하루 즐거움에 지내고 있습니



다. 원남편은 조선소에서 도장일을 하면서 하루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 지내고 오로지 가족의 소중함보다는 우리 가족을 먹여살여야 된다는 압박감에 쩌들어 돈만 따라다니는 일반적인 가정의 남편이었고 거제조선소와 창원조선소를 돌아다니며 가족과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는 떠돌이 아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이런저런 신문과 인터넷과 뉴스를 보면서 저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늘에 날벼락같은 소리여서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틀어 놓은 이야기는 “여보! 우리 귀농하러 시골에 가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를 지으면 시골에서 평생 허리를 굽어가며 일을 해야되고 “내 나이 35살에 무슨 농사를 짓겠냐”는 등 불신만 가득했었습니다. 도시에서 다른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육아하면서 사는게 나의 꿈이었는데 현재 생활의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감당할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지함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약간은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귀농을 하면 귀농자금 3억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와 후계농업인이 선정에 되면 또 2억을 빌려준다는 등 청년부부에게 많은 혜택이 있는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나도 이제 일에 지치고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울컥했습니다.

며칠간 남편에게 아무말 하지 않고 저도 인터넷과 처음으로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고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등 여러가지 자료들 그리

고 여성농업인으로 성공한 성공담 등 많은 자료들을 보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남편의 직장생활의 장래성과 농업의 발전가능성을 서로 비교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여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수역의 부채를 안고 가야되지만 서로의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자고. 남편의 제안에 처음에는 무서웠고 중소기업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수도 있어서 많이 걱정하였지만 농사는 땀흘리는 사람에게 복을 주듯이 하루하루 그런 걱정은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저희는 귀농귀촌 창업자금 3억을 활용하여 신축온실을 짓기로 했습니다. 온실 시공업체와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지만 옆에 있던 저의 남편이 손을 파악 잡아주어서 마음에 안정을 느낄수 있었고 한순간으로 고마움이라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예전 회사생활 때 보다는 많은 부채를 안고 갈 우리가족이지만 농업을 시작하면서 왠지 서로를 의지하고 이해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한편으로 좋은 점도 생긴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작물을 선택을 해야되는데 저희는 앞으로의 발전가능성과 수출시장을 노려 미니 파프리카를 선택했습니다. 미니파프리카의 당도와 맛을 보고 저희가족은 많은 메리트를 얻었고 우리나라도 차후에 큰 파프리카 보다는 미니파프리카를 선호할 날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종자회사와 암면 슬라브 회사와 계약을 하고 그리고 출하선정은 E마트와 계약을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4명과 저 그리고 남편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첫 파종을 할 때 날씨가 무척 더워서 물인지 땀인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여서 '정말 이 씨앗을 커서 열매를 맺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신기하게도 5일이 지나면서 작은 잎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누구에게 말할수 없을 만큼 혼자 콧노래를 부르며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컴퓨터에 환경제어와 연동을 시켜 모든 온실을 자동제어로 감지하는 것도 보면서 이건 농사가 아닌 농업이라는 생각과 '이렇게 농업이 발전이 되었구나' 라고 감탄 했습니다.

하루하루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노래를 들 으면서 작물을 키우다보니 어느덧 선선한 9월이 되어 아주 작은 열매가 맺 으진 것을 보면서 팍 한방울을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느 꼈습니다. 온실을 짓기 시작부터 업체와 이런저런 방식을 얘기하면서 스트 레스 받는 남편과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저의 스트레스, 환경제어를 처 음 접하면서 밤을 세워 가는 우리 가족을 생각하니 별걱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슬프지 않는 기쁨의 눈물이라서 너무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덧 수확의 계절이 와서 처음 미니 파프리카를 먹어보니 너무 달달 하고 식감도 좋고 맛이 있어서 이 미니파프리카를 먹을 소비자를 생각하면 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의 전화 한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는 <6시 내고향>에서 미니파프리카 촬영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 다. 저희 둘은 고민도 없이 우리 상품의 홍보를 위해 승낙을 하고 그 날만 기 다렸습니다. 집에서 서로 "무엇을 물어볼까?"라는 말에 서로 미니파프리카 에 대해 공부도 하고 서로 묻고 답하고 결혼 이후 제일 재미있게 흘러갔던 하루였던 것 같았습니다.

농사에 종사하면서 TV에도 나오고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촬영을 하는날 옆에서 남편의 인터뷰와 온실 구경과 수확하는 과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농부가 아니라 한길만 고집하고 있었던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앞만 보기보다는  
좀더 멀리 봐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파프리카의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 저는 소고기와 의 경합 일명 소파프리카와 잡채, 파프리카 3색쥬스를 홍보했습니다. 이 음식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몇 번과 과정을 통해 만들었는데 PD님이 너무 맛있다면서 촬영이 끝나고도 다 먹고 가서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으면 어찌지? 이런저런 걱정이 있었지만 PD님의 얼굴을 보고 그런 걱정은 싹 사라졌습니다. 방송날짜를 보고 우리 가족은 일찍 퇴근해서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정말 방송이 될까? 6시간의 촬영시간을 10분만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손에 땀도 나기 시작하는 순간 저희 온실을 촬영하면서 남편도 나오고 저도 나오고 서로 웃으면서 10분동안 주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촬영이 TV에 나오고 끝나는 순간 저에게는 50통이 넘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경진아 너 TV에서 봤다. 너무 잘되어서 기분이 좋다. 농사를 처음 짓고 싶은데 상담이 가능할까요? 파프리카 주문가능할까요?” 등 수십통의 전화를 받는 저를 남편이 안아주면서 옆에서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눈물이 왈칵나면면서 ‘노력을 이길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종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농사를 짓겠다는 제안에 불신과 의심과 걱정이 다였는데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웃고 울고 기쁘고 슬프고 이런날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성숙하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차지하면서 2,600평으로 시작해 현재 1만평의 온실을 이룩하여 기쁨과 자부심을 느끼며 여기서 더 일어나서 규모화에도전을 해보아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지

내고 있을 순간 남편이 아침마다 무언가를 작성하고 온실에 소홀히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면사무소만 왔다갔다 하는걸 보고 섭섭함을 느끼고 “농식품부에 갔다가 올게” 라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온실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창 바쁘고 수확이 밀려 있고 혼자 감당하기 힘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관리도 쉬울줄 알았는데 의사소통이 힘들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순치기 작업은 이렇게 해야된다. 수확은 이렇게 해야된다 등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쌓일 때 즈음 저희 남편이 뛰어와서 고생 많았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수출전문 스마트팜>에 선정이 되었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묻고 다시 묻고 했지만 어쨌든 좋은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만이 싹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기술센터와 면사무소와 농림부에 왔다갔다 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남 마이스터 대학(과프리카)에 다니면서 과프리카 교육과정을 듣고 앞으로의 수출계획과 온실확장으로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자금문제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바빠지면서 저는 더욱 작물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천적을 활용하여 농약을 치지않고 천적예찰부터 양액 배액관리를 하면서 이 작물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건지 까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제는 전문과정까지 알게 되어서 스스로 부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즘들어서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성농업에 대한 교육과 40세미만의 젊은층을 농업에 종사할수 있게 체계적으로 교육도 실시하는 있어서 저도 나름대로의 교육계획과 작물관리의 방향을 잡고 남편과 젊은부부가 정말 농업에 종사할수 있구나! 라는 인식을 다른젊은



부부에게도 상담도 해줄수 있다라는 인식도 심어 줘야겠다는 자부감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과 남편은 수출전문 스마트팜의 사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쯤 저희에게 엄청나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일십만불 수출탑>에 선정이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90%이상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는데 꾸준히 실적을 잘 올려서 수출탑에 선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노력의 대가를 상으로 받게 되어서 그날 남편과 두 손을 꼭 잡고 더 열심히 꾸준히 하자고 서로를 더 격려했습니다. 국내가격이 많이 상승할 때 우리도 국내에 팔자는 나의 제안도 무시하고 꾸준히 수출에 전념했던 남편의 의지도 고맙게 생각되고 여기저기를 바라보는 농부가 아니라 한길만 고집하고 있었던 남편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앞만 보기보다는 좀더 멀리 봐야겠다는 반성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딸기부터 파프리카까지 많은 농가가 모여서 행사를 시작하는데 저희가 제일 젊은부부 였기에 주목도 되었습니다. 대표로 남편이 나가서 상을 받고 저는 뛰어나가서 꽃다발을 주고 농사를 지으면서 이만큼 기쁜 하루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작물의 키우면서 우여곡절과 사소한 말다툼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러움 모두 날려 버렸습니다.

마음속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여 여성농업인으로 선두주자가 되자' 라는 굳은 의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 상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커피도 마시고 도시에 살았던 여유도 부러봤지만 그런 기쁨은 한 순간이었고 우리가 키우는 작물을 보고, 만지는 기쁨은 마음속 깊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가 회사를 그만두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우리가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농업에 종사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간 부부들도 많다고 주의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부부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힘들 때마다 마음 속으로 파이팅 외치고 뒤도 안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려와서 생애 처음으로 <6시 내고향>에 출현하고 처음으로 수출탑에 선정되고 그리고 수출전문 스마트팜에 선정되어서 6,000평 온실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남편이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어서 땅을 살 수 있게 되고 파프리카를 직접 키우고 수확하고 좋은 품질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팔고 6차산업에 대한 하나의 꿈을 더 실현시킬 수도 있고 이런 무궁무진한 농업 발전에 대해 누구에게 감사할 해야 할지 모를만큼 많은 것을 얻어가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면 아직 회사일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육아를 하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살았을텐데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부끄러움보다는 자부심이 더 생기고 부부간의 의지도 더 생기고 앞으로의 꿈도 더 생기고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도 더 생기고 누군가에게 가르쳐줘야겠다는 사명감과 앞으로의 계획도 생기게 되어서 하루하루가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전문 스마트팜>이라는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6차산업과 자체선별로 인한 일자리 창출도 생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중으로 완공이 되어서 수출에 우선적으로 기여하고 인터넷홍보 담당과 철저한 천적재배를 통해서 병해충이 없고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파프리카를 제공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파프리카와 하루를 보내고 있는 35살 새댁의 하루를 글로 적어보았습니다.

## 나는 농사꾼입니다



배정숙 

나는 농사꾼입니다.

제 나이 57세인 2011년 제주도로 처음 내려와 제주 감귤 농사로 인생 2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다 성장해서 독립을 하였고 복잡하고 답답한 도시 생활에 지쳐 내 할 일은 다했다며 프리선언을 하고 미련없이 저는 제주도행을 택했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자 내려온 평화로운 제주도에서 곶농사라는것은 제게 인연이었을까요?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꿈꾸던 제가 2012년 서귀포 강정동에 오랫동안 방치된 2200여평의 돌밭을 구입하면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농사를 전혀 지어본 적이 없는 전형적인 도시인이었지만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의욕

이 넘쳤었고 험한 밭이라도 노력만 하면 쉽게 해쳐 나갈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서 사지 말라고 말리기까지 했던 녀굴이 뒤엎겨 있던 험한 돌밭! 저는 이 돌밭에 생명의 힘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방치되어있던 돌밭이 억척스런 새 주인을 만나 새로운 꽃 단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지만,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층층이 험한 돌밭이라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굴착기로 바위를 깨고 없던 길도 새로 만들며 평탄작업을 하여 밭을 갈고 엷어 새로이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또 치웠고 녀굴들은 베어내도 어찌 그리 생명력이 긴지 해가 뜨기도 전부터 해가 저서 어두워져도 칩과 마삭줄을 낮으로 뜯어내는 일을 무수히 반복하였습니다. 귀농 이후로 단 하루도 쉬 없는 낮질에 어깨부터 손마디가 쑤시고 저려 하루도 편하게 잠을 이루는 날이 없었습니다.

돌밭이었던 단단한 그 땅들이 녀굴의 옷을 벗고 부드럽고 화려한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돌밭에게 점점 애착과 자심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아름다운 공간에 한라산이 보이는 뜰, 한라뜰이라는 예쁜 농장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보 귀농인으로 감귤재배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서귀포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감귤생산 지원을 받으며 성목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줄을 맞춰 4m 간격으로 나무를 옮겨 심어나가기 시작하던 중 이웃 어른이 오셔서 나무 이식을 한사코 말리셨습니다. 바위 밭 나무를 뜯어 옮기면 나무가 다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되어 망설이기도 했지만 독심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지표대로 밀고 나가 이식을 완료했습니다. 그전에는 관수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아 옆농장의 물을 빌려 호수로 끌



어다 써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식 후 뿌리가 잘 내려야 싹이 나오는데 싹이 안 나오는 나무가 많아 애를 태우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가 내린 날엔 아래밭으로 흙이 다 쓸려 내려가 퍼담아 나르기를 수차례하며 진땀을 빼기도 하고 차양막을 씌워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쇠물대롱으로 땅에 콧아 매일 열심히 물을 주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며 첫해와 두 번째 해는 수확도 포기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5월엔 수많은 감귤꽃을 따버려야 했고 뜨거운 7월과 8월의 한여름에는 땀병에 서서 모든 청귤을 따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삼년이 되던 해에는 토양피복을 깔아 나무 아래쪽과 실에도 골고루 햇빛을 볼 수 있게 하여 과일의 당도를 높여주었습니다. 진딧물 번진 새순을 잘라내고 풀도 일일이 검질매기 해주고 예초하며 농약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특히나 쪼그려 앉아 검질매기를 할 때는 나뭇가지에 찢리기도 하고 정말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새로운 도전인 귀농인생을 꼭 성공시키고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 키울 때도 안 들려주던 클래식 음악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농장 전체에 틀어주며 매일매일 금이야 옥이야 정성을 쏟은 지 삼 년차 만에 첫 수확을 할 수 있는 굴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노랗게 물든 감귤밭을 보며 제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 피었습니다. 농사와는 어울리지도 않던 멋모르는 서울여자가 와서 돌밭을 사더니 돌을 파내고 깨부수고 유난뎐다며 쓸데 없는데 힘 빼지말라고 걱정하던 주변 이웃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도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 정착할 수 있도록 농기구며 물이며 아낌없이 빌려주신 이웃들과 저를 품어준 이 마을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저희 농장

에 초대하여 문화제도 선보였습니다. 귀농인과 귀촌한 예술인들과 함께 드룩파티라는 이름의 문화제를 열어 그간의 감사한 마음을 예술공연으로 전하였습니다. 무대가 아닌 농장 담벼락 위에서 또는 포크레인 위를 무대삼아 새로운 창작공연이 진행되었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문화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굴나무에 넘쳐나게 열린 굴을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제 고생은 끝이다 행복 시작이라며 잠시 착각에 빠졌습니다. 수확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지만 20키로가 넘는 수확한 굴바구니를 하루에 몇십 컨테이너씩 나르고 일일이 선별하여 포장하고 컴퓨터로 배송 송장을 뽑고 직접 택배사에 가져가 컨테이너에 싣는 과정까지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서울에선 택배받는 것이 그리도 쉬웠는데 농장의 주인이 되어 내가 직접 보내려 하니 하나부터 열까지 쉽게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가들만 있어 그 혼한 인터넷 연결조차 사정을 해서 인터넷을 개통하는데만 몇 년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조금만 걸어나가면 전화도 터지지 않는 산속 외판마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낮에는 수확하고 밤에는 익숙치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아 누가 이기나 싸워가며 일일이 낮선 주소를 검색하고 배송송장 만드느라 뜯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내 자식같은 굴을 맛보여 드릴 수 있다는 기쁨에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역시 그 간의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니다. 2015년 한라뜰 농원의 굴이 제주 감굴연합회, 제주농협중앙회 주최 우수감굴경연대회에서 당당히 최고의 1등 감굴왕으로 선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전국 대표과일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 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굴부문 1등!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로워 두 번은 못하겠다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두 대회



무대가 아닌 농장 담벼락 위에서 토는 포크레인 위를 무대삼아  
 새로운 창작공연이 진행되었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웃고 즐기며 문화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두 수상의 영광이 한꺼번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귀농을 한 이후로 매일 밤 손가락 마디마디가 찌시고 저려 잠 못 이루면서도 뒤에 이끌린 듯 눈뜨자마자 농장에 나가 낫질을 하고 정성을 쏟아부으며 힘들게 지냈던 긴긴 시간이 생애 최고의 보람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농사를 짓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을 때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며 말리던 가족들도 제 열정을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습니다. 제주에 있는 수많은 감귤농장 중에 귀농 새내기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한번 맛본 고객이 또 찾아오고 맛있다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먼저 연락 오는 고객들이 늘고 입소문이 나면서 매년 수확 시기가 되면 조기 품절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건강한 먹거리, 우리 가족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농사짓는다는 마음으로 농약 쓰는 것을 최소화하고 액비와 효소거름을 만들어 점적관수로 공급하며 GAP인증과 저탄소 인증까지 받게 되었고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한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제주대표로 뽑혀 사례를 발표하며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못된 풀은 보는 즉시 그대로 맨손으로 뽑아내며 손톱 밑에 흙때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고운 손 아니 예쁜 색의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는 세련된 손과도 바꿀 수 없는 울퉁불퉁 굳은살이 배기고 흙 때가 낀 노력 끝에 얻어낸 값진 농사꾼의 손.

막 돌이 지나 걷기도 못하는 손주가 틈만 나면 베란다에 할머니가 농사지은 굴이 있는 걸을 알고는 엄마 눈을 피해 기어가 껌질째로 굴을 몇 개씩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내 고집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며 저절로 웃음짓게 하였습니다.

농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자식들도요. 물

주고 약주고 수확만 잘 하면 되는거 아니냐구요. 저도 물론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수확철이 끝나면 또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피복을 걷어내고 한해동안 고생한 나무들에게 퇴비며 거름이며 수차례 영양분을 충분히 줍니다. 출산한 자식과도 같으니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또 보살피 주어야 합니다. 봄이 되면 골고루 햇빛 잘 들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꿀꽃이 피면 골라내주고 열매가 맺히면 또 적과를 해줍니다. 그대로 수확했다간 모든 과실에 영양분이 고르게 가지 못해 당도도 떨어지고 크기도 들쭉날쭉해집니다. 아래쪽 과실까지 골고루 익게하기 위해 피복을 깔아주어야 하는데 그전에 밭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돌도 줍고 풀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밭을 만들기 위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풀과의 전쟁입니다. 넓디넓은 농장 한쪽부터 풀을 뽑기 시작해서 반대쪽까지 풀을 다 뽑고 나면 어느새 다시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 허리 펴 새도 없이 낫질을 시작합니다. 피복을 깔면 풀이 안 자라니 좀 편할 것 같다고요? 그때부터는 또 피복 위를 청소해주어야 합니다. 제주 바람에 못 이겨 떨어진 잎과 과실 등이 햇빛 반사를 막아 골고루 빛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더 부지런히 극성스럽게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더 많은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고 맛있는 과실이 맺히니까요

귀농,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귀농을 하면서 세가지를 끊었습니다. 골프, 백화점쇼핑, 화장.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가지와 친해졌습니다. 눈만 내어놓은 모자, 연장, 오일장. 특히 대장간은 낫을 가는 단골이 되었답니다.

여성 농업인으로써 농사일은 힘들고 고되었지만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도전하였습니다. 매일 햇볕에 나가 농사를 지

으며 얼굴은 까매져 누가 봐도 시골할머니가 되었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은 오히려 얼굴이 밝아졌다고 보기 좋다고 합니다. 꽃도 심고 마당을 가꾸며 전원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제주 올레길을 산책하며 농장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아름다운 농원이라고 사진도 찍고 차도 마시며 꽃도 분양해 가시곤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수확의 보람을 느끼며 저는 오늘도 나무, 풀과 씨름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시작할때만 해도 앞이 보이지 않은 힘들고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서울내기에서 이젠 완전한 농사꾼으로 이 정도면 제2막 귀농인생 성공한거죠? 요즘 인생은 100세부터라던데 저는 또 제3막 인생을 향해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 농사꾼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최은정

마흔 살에 귀농이란 걸 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그저 농사짓고 싶은 가족이 들어왔으니 귀농이랄 수도 없고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했다고 하는 게 낫겠다. 서울에서 바쁜 직장 생활하면서 꿈꿨던 ‘언젠가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덜렁 내려와 호기롭게 농사일을 시작했지 뭐냐. 그렇게 벌써 5년이 흘러 버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귀농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하고 물으면 “아직 5년 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아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뭐하다. “아, 벌써 6년차가 됐네요…….” 하고 말꼬리가 흐려진다.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차라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럽다. 직장에서 5년 경력을 쌓으면 대리 직급 정도는 달 수 있을 텐데, 나는 지금 수습도 못 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며칠 전만 해도 그랬다. 올해 우리와 같이 쌀농사를 하기로 한 정미소 사장님 부부랑 모판에 벼씨 뿌리는 일을 하다가 괜한 열등감에 시달렸다. 벼씨 파종하는 일이야 상토 깐 모판에 물 뿌리고 파종기계 손잡이 돌리고 모판 옮기고 하면 되는 일이라 그리 어렵지도 않다. 그런데 일을 다 끝내고 정미소 사장님 아내 분이랑 파종기계 아래에 깔아 두었던 가빠를 개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아, 나는 왜 이것밖에 못 할까' 싶어 기분이 안 좋아졌다. 가빠 모서리를 잡고 있던 내가 사장님 아내 분 쪽으로 접으려고 가져가니까 아내 분이 답답한 듯 소리를 쳤다. "아이고, 은정 씨.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자 낄낄대는 내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정미소 사장님이 얼른 달려와 "제가 할게요!" 하고는 부부가 가빠를 길게 접고서는 반으로 착, 또 반으로 착 접어서 별일도 아니라는 듯 척 하고 트럭 짐칸에 싣더라는 말이다.

정미소 사장님 부부는 오랫동안 동네에서 정미소 일을 했지만 농사짓는 건 올해가 처음이다. 우리도 벼농사는 올해가 겨우 두 해째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배우겠다고 왔는데, 이건 뭐 우리가 가르친다고 말하기가 쑥스럽더라는 말이다. 물 먹은 모판을 드는 것도 정미소 사장님이 우리 남편보다 더 잘해, 가빠 개는 일조차 사장님 아내 분이 나보다 더 잘해, 이 일을 어찌누?

내가 농사일 하는 모습이 남이 볼 때 참으로 어설피 보인다는 걸 나도 잘 안다. 키도 작지, 팔다리도 짧지, 하다못해 손도 작지. 작더라도 힘 좋은 사람도 있더라만, 힘도 달린다. 힘이 달리면 기술이라도 좋으면 되는데 시골에서 보고 자란 게 없으니 기술도 없다. 타고난 일머리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겠는데 젊어서 책상 앞에서만 머리를 굴려서인지 밭에서는 머리도 잘 안 돌아간다.

농사를 시작하고서 첫해 겨울에 애호박 농사를 지은 적이 있다. 나랑 남편



둘이서 하우스 3동에 모종 심기가 벅찰 것 같아 동네 할머니 한 분을 불러 모종 심기를 부탁 드렸는데, 할머니가 밭에 발통 달린 것처럼 식식식 모종을 심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했다. 평생 농사지어 온 분들이 몸으로 익힌 속도가 놀랍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속도가 아니었다. 모종을 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 내가 심은 모종들만 유독 많이 말라 죽어 있는 게 아닌가. 모종 심던 날, 할머니 아들이 구경을 와서는 내가 모종 심는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면서 가르쳐 주기까지 했는데, 흠을 너무 꼭꼭 누르지 마라. 대충 손으로 훑어서 덮으면 된다, 이렇게 심다가 한밤중까지 심겠네, 하며 지청구를 놓고 실실 놀리기도 했는데. 그냥 한 번 보거나 말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는 궁극의 기술, 그러니까 흠을 파는 깊이라던가 손으로 흠을 덮는 힘 같은, 몸으로 익힌 감각으로 이뤄낼 수 있는 진짜 농사 달인의 비법이 숨어 있었으리라.

처음엔 나도 몇 년 후면 밭에 발통 달린 할머니처럼 모종을 심을 수 있겠지 싶었는데 그런 일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농사일에 도 재능이 있는 것인지 도무지 속도와 기술이 늘지를 않고 해마다 늘 벽에 부딪치는 일이 생긴다. 농사일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조건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학교 공부할 때는 깡다구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임신한 채 가장 일 많은 팀에서 일할 때는 독종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어찌 농사일에서는 독한 의지로도 메워지는 게 없는 건지. 지난해는 “정말 농사 그만 짓고 싶다”는 말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무화과 하우스 일을 하다가 한 번, 논에서 잡초를 뽑다가 또 한 번. 그렇게 울어 버렸다. 농사 시작하고서 처음 소리 내어 끼이끼이, 눈물 콧물 다 쏟아 냈다.

하우스에서 키우는 무화과가 우리 농장 주작물인데, 지난해에 하우스 일



발에 발동 달린 듯 모종 심는 동네 할머니와  
 날마다 풀 뽑으라고 잔소리하는 논주인 할머니가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되었네" 하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해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을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무화과는 잎이나 가지를 꺾으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 그게 피부 약한 사람에게는 화상을 입힌다. 아무리 무화과 잎을 만져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진액을 만지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가렵고 피부 껍질이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다. 다행히 남편은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데 나는 또 유독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봄마다 무화과 곁순 떼는 작업을 할 때마다 거의 한 달 동안 손이 퉁퉁 붓고 나중에는 손이 무슨 과충류 발처럼 얼룩덜룩 시커멓게 된다. 물론 피부과 병원에도 가 보았지만 “무화과 작업하다가 이렇게 됐어요”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런 증상은 난생 처음 본다는 듯이 “어허, 그래요?” 하고 되묻는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어도 가려움증이 좀 덜한 거 빼고는 별 효능도 없고 그저 무화과 잎과 가지 만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제야 낫는다. 첫해에는 너무 괴로웠는데 다음 해부터는 내 체질이 참 요상하다 생각하고 그냥 참아가며 일을 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직전에 무화과나무 진액을 얼굴에 푹푹 맞아 버렸던 거다. 무화과 나무가 사람 키보다 크게 훌쩍 자라 높이가 자란 가지를 빨리 잘라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생기지 않아 열매가 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편은 다른 일로 바쁘다고 며칠 후에 가지를 자른다고 하고 나는 마음이 급했다. 그러면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싶어 내 팔보다 긴 전지가위를 들고 팔을 있는 대로 뻗어 가지를 잘랐더랬다. 진액을 안 맞으려고 긴 챙모자를 쓰고는 가지를 자르자마자 고개를 꺾 돌려가며 혼자서 킁킁댔다. 그런데 서두른다고 어둑해질 때까지 가지를 자르다 보니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얼굴에 진액이 튀었던가 보다. 이삼 일 뒤부터 얼굴이 가렵고 반점처럼 흉터가 생기더니 일주일 쯤 뒤에는 온 얼굴이 얼룩덜룩해졌다. 그 얼굴

로는 읍내에 장을 보러 갈 수도 없고 누구랑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도 싫었다. 나는 나대로 짜증이 나는데, 남편은 남편대로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냐며 도로 편잔을 주는 거였다. 그 말을 들으니 내 팔자에도 없던 농사를 짓겠다고,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바로 옆에 남편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리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싶어서 서럽고 서러웠다. 가려운 손을 벽벽 긁으며 혼자서 맥주를 마시는데 눈물이 그냥 똑똑 떨어지더라.

그리고도 밭에 나가면 또 해야 할 일이 늘어져 있으니 또 땀 쪽쪽 흘리며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날은 서러움에 북받쳐서 눈이 붓도록 울었다. 눈에서 잡초를 뽑다가 눈 한가운데 서서 목에 걸쳐 둔 흙 묻은 수건을 받쳐 들고 말이다.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눈을 빌려 준 논주인 할머니가 날마다 와서는 눈에 풀을 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날은 하루 종일 풀을 매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논주인 할머니는 잡초 때문에 눈 망친다면서 제초제를 치라고 하는데, 우리는 제초제 치지 않고 키워 보겠다고 했던 터였다. 하루 온종일 풀을 뽑으면 300평 작은 논 풀은 다 뽑지 않을까 싶었다. 남편이랑 눈에 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풀을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밖에서는 코딱지만 해 보이던 눈이 막상 들어가 보니 왜 태평양만큼 넓어지는 건지. 빨밭처럼 밭이 쭈욱 빠지는 눈에서 한 발짝 떼는 것도 힘든데 허리를 구부리고 풀을 뽑으니 한 시간도 안 돼 현기증이 났다. 논바닥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역겹고 머리도 아프다고 남편한테 투덜댔더니 “그래 갖고 무슨 농사를 짓겠다고!”라는 말이 바로 날아왔다. 그러더니 동네 다른 하우스에 비닐 씌우는 일을 도와주러 간다며 쏙 가 버리더라. 그래, 나 혼자서라도 이 작은 논 하나는 끝내 농사 싶어 머리 핑핑 도는데도 두 시간을 더 했다. 혼자서 땀별 아래 반나절 가까이 풀을 뽑고 나서 돌아보니 300평 논 반에 반에 반도 덜 했던 거



더라. 내리쬐는 해가 ‘쫄쫄,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냐’ 하고 한심스러워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두고 간 남편은 더 원망스럽고 제초제 뿌리러던 논주인 할머니가 내일도 새벽부터 와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으면서 남의 논 다 망쳐 놓는다”며 화를 낼 것 같고……. 논바닥에 달라붙은 밭은 떨어지지도 않고 입에서는 울음이 푹 터져 나왔다. 지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논 한가운데서 엉엉 울다가 집으로 와 버렸다.

내가 남편 따라 억지로 시골에 들어온 것도 아니요, 세상에서 농사가 가장 착한 일이다 생각하며 나름대로 큰마음을 먹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느끼며 사는 참된 농사꾼. 일도 척척 하고 일하고 나서 힘든 세상살이도 껄껄 웃으며 넘기는 멋진 농사꾼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 내 모습은 서툰고 어설피고 찢찢매는 열등생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도시에서는 경쟁에서 독하게 이겨 성공했다는 말도 들었고, 인사고과에서 S등급 받으며 일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으며 나 잘난 맛에 살았는데 농사꾼이 되고나서는 내가 자꾸 작아지는 것같이 느껴졌다.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 남이 자꾸 부러워지기도 했다. 땅 많이 가진 사람도 부럽고 몇만 평 농사짓는 부모를 둔 사람도 부러웠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만 해도 똑똑하고 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 부러웠는데 농사짓고 나서부터는 힘 좋고 일머리 좋은 사람이 부러웠다.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어릴 적부터 농사짓는 부모님 옆에서 농사일 보고 배운 사람들이 부러웠다. 텃밭에 난 풀을 보고 이건 무슨 풀, 이건 독초, 이 풀은 가지를 꺾으면 노란 액이 나오고, 이 풀은 꽃을 쪽쪽 빨아 먹으면 단물이 나온다고 술술술 이야기를 풀어 놓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어쩌다 내가 이리 쪼그라들었을까? 그래도 나는 나대로 일 잘하는 농사

꾼이 되려고 정말로 애썼는데. 팽별에 조금만 서 있으면 두통이 생기는 내가 두통약을 먹고 하우스에 들어가고, 남보다 손이 느리건 말건 쪼그리고 앉아 참 챙겨 먹을 겨를도 없이 풀을 뽑고, 아침잠이 많은데도 무화과 수확철이면 새벽 4시 알람시계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오전 내내 포장 작업을 하며 일했는데 말이다.

남들이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농사꾼 다 됐다 싶을 때는 언제쯤이 될까? 아주 가끔은 ‘아, 내가 진짜 농사꾼이 됐구나’ 싶을 때가 있기는 하다.

일하다 바람 한 자락이 불 때, 이 바람 한 자락이 ‘너 수고 많다’고 등 두드려주는 것 같아서 짜증났던 마음도 확 풀린다. 우리 무화과가 올해는 언제쯤 나오냐며 묻는 고객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때, 그 전화 한 통에 그저 힘이 나서는 내일은 더 일찍 하우스에 들어가야지 하고 생각한다. 또, 우리 쌀을 얻어 드시고는 밥맛이 참 좋다는 친척 분 말 한 마디에 내년에는 울지 말고 잡초 뽑아야지 하고 생각할 때도 남이 보기에 내 몸이야 어설피든 말든 나 스스로는 농사꾼 마음이 다 되었다 싶은 거다. 농사짓기 어렵고 돈 안 되는 줄 잘 알면서도 친환경 농사짓겠다고 아직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도 아직까지는 스스로 대견하다.

마음이 몸보다 조금 앞서지만 몸이 따라오는 건 내가 오래 농사짓는다면 언젠가는 따라오겠지. 밭에 발통 달린 듯 모종 심는 동네 할머니와 날마다 풀 뽑으라고 잔소리하는 논주인 할머니가 “이제 진짜 농사꾼 다 되었네” 하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해 주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마 빠리는 오지 못 하더라도 언젠가 올 것 같긴 하다. 그저께 정미소 사장님 부부가 무화과 결순 치는 일을 도와주러 왔는데 결순 치는 속도가 내가



더 빨랐다! 5년이나 더 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아니, 당연한 건 없다. 5년간 내가 몸으로 겪은 날들, 내가 평평 울며 견뎠던 시간이 만들어 낸 거니까.

스스로에게 “너, 이제는 내가 봐도 농사꾼 다 됐다!” 하고 인정해 줄 날이 올 거다. 그동안 내가 겪을 일도, 견뎌내야 할 시간도 만만치 않겠지만 처음에 내가 농사꾼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천천히라도 그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날마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건다. ‘은정아, 이 정도면 잘 하고 있는 거야라고, 그렇게 오늘도 힘을 낸다.

# 바람속에도 꽃은 피어나고



김미숙

## 다시 고향으로

2015년은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해다. 그 해에 나는 서울을 뒤로 하고 오랫동안 떠나있던 제주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갈 때는 새색시였는데 올 때는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서울에 살면서 온갖 편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나 다시 시골로 가리라는 생각을, 가서 햇볕에 짝짝 말린 이불과 베개 냄새를 맡고 살리라는 다짐이 있었다.

거기에는 유년시절의 온 천지가 풀밭으로 둘러싸인 목양지에서 어머니와 소몰이를 하면서 바라본, 풀들이 바람을 타서 한쪽으로 쓸려가며 누워가던



모습과 한가롭게 풀을 뜯던 소들 위로 하얀 구름이 양징맞은 모습으로 흘러 가던 하늘 그리고 우리 소 떼가 돌담을 넘어서 이웃 콩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부드럽게 타이르시던 지금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겨운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때가 온 것이다. 이즈음 나는 어느 정도 두 아이의 뒷바라지를 마치고 내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던 참이었고, 마침 시골에는 시부모님이 남겨주신 오래된 집과 땅이 있었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어머니가 소나무 밭을 갈아엎고 과수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를 했다.

“뭐라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80이 넘으셨어.”

아! 이런, 나는 미루기만 했는데.

세상에! 80세가 넘으신 노인들이 2500평 밭을 만들고 과수농사를 지으신다니!

순간, 나는 나의 젊음이 부끄러워졌다. 그리고는 언제나 저만치 밀어두었던 용기를 불러 올렸다.

## 2. 묘목과 스승을 찾아서

친구를 졸라 서울에서 김제까지 쫓아간 나는 비탈진 산밭에 오와 열을 맞춰 질서정연하게 심어진 아로니아 나무들을 보았다. 그리고 아로니아가 각종 성인병 예방과 면역력 강화, 노화방지는 물론 시력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열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아로니아 나무를 심기로 결정한 나는 그녀의 친척오빠이자 이 나무 묘목을 만드신 분을 만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용건을 들으신 그 분은 아로니아가 제주의 기후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만일 그래도 심는다면 제주에서 묘목으로 자란 나무를 구해서 심는 것이 토양 적응에 유리할 것이라며 완곡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오셨다.

하는 수 없이 제주에서 묘목을 구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태흥리에 있다는 아로니아 농장, 제주시에서 묘목을 판매하는 농원까지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모두 여의치 않았다.

식재시기를 농칠까봐 다급해진 나는 친구한테 그 분 전화번호를 알아내고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다.

‘지성이면 감천’ 이라고 했던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그 분이 한 번 와보라는 말씀을 하시고 친구와 나는 한달음에 김제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의 농사 열정을 확인하시더니 너무나 고맙게도 당신이 과수원을 확장하려고 직접 전지해서 수형까지 잡은 나무를 나눠주겠다고 하셨다.

“여자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려 하나” 라고 걱정하시면서.

### 3. 생명이 움트는 대지

2015년 3월 13일, 이 날은 내가 진짜 농부로 변신한 날이다. 집과 이어진 농장 800여 평에 직접 나무를 심기 시작한 날이기 때문이다. 농부이셨던 아버지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 나 셋이서 3일 동안



700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아버지가 경운기로 골을 내주시면 줄을 띄운 자리에 삽으로 땅을 파서 나무 밑동을 넣고 주변의 부드러운 흙을 모아서 덮고 밭로 밟아 흙을 돋워 올려다.

심장은 기도와 설렘으로 쿵쿵거렸다. 마지막 날에 한 방울씩 내리던 비는 간절한 기도의 화답이 아니었을까? 고마운 단비였다.

2~3일 주기로 알맞게 내려주던 봄비, 비를 흠뻑 머금고 빠끔히 얼굴을 내밀던 잎사귀들, 일을 마치고 밭 가운데 서면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또, 5~6월이 되어 점차 푸르러만 가던 나무들, 김을 매는 내 얼굴과 이마에 흐르는 땀을 식혀주던 바람, 건너편 솔밭 숲, 집 너머 보이는 성산 일출봉, 이들 자연은 육체노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내게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을 주었다.

자신감이 차 오른 나는 이듬해 농장을 확장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관행농을 해오던 밭을 되찾아 쟁기를 대서 가로 세로로 두 번 갈아엎고, 로터리로 흙을 잘게 부수어 유박을 듬뿍 뿌려 땅을 살리기 위한 작업부터 시작했다.

제 2농장은 성산 일출봉이 지척인데 바다가 너무 가까워 염분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위치에 해봤다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해보는 수 밖에 없었다. 결단을 내린 나는 이 밭에 아로니아 나무를 심고 농장을 만들었다.

이어 마을 인근에서 가장 토질이 좋다는 밭도 돌려받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땅을 새로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제 3농장을 만들었다.

자그마치 2800주를 심느라 아버지는 무척 고생을 하셨고, 나와 동생은 물론 멀리 김제에서 그 동안 묘목분양 뿐만 아니라 농사지도까지 해주시던 선

생님이 오셔서 도와주셨다. 몸이 아파 휴양차 와 있던 동생은 졸지에 반 농부가 되어 버렸다.

화학비료와 농약에 찌든 땅, 제초제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고 고개를 젓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나는 단단하게 굳은 땅을 갈아엎어 흠에 바람이 들게 했다. 생물이 오물거리고 건강한 풀들이, 벌레가 나뭇잎에 숨어서 함께 살기를 바랐다.

#### 4. 시련을 넘어서

봄에 돌풍이 잦았던 탓에 바다가 가까운 성산 일출봉 제 2농장 나무는 뿌리가 심하게 흔들려 세 번씩이나 고쳐 심어야 했고, 그 때마다 내 마음은 나무가 죽을까봐 걱정하면서 타들어갔다. 또, 제 3농장에 단정하게 씩웠던 방초매트는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이웃 밭으로 날아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일부는 심어진 나무들을 덮쳐 비스듬히 쓰러뜨렸고, 올 풀린 실이 몇 겹, 몇 십 겹으로 나뭇가지와 잎을 칭칭 감아버린 처참한 현장을 마주하기도 했다.

울고 싶은 날들, 주저앉고 싶은 날들을 벗어나려고 나는 또 얼마나 많은 노동을 감내했던가! 그것은 실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아니 이겨내려는 안간힘이었다.

이 와중에도 내가 만들어 놓은 땅에서는 나무가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가면서 위로는 새순이 돋아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아주 작고 하얀 꽃들이 탐스럽게 송이송이 피어났다. 또 보슬보슬한 땅에서 부드럽게 뻗히던 잡초들과 흠 속에서 꼬물대는 지렁이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 끝에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길을 돌아갈 것이다. 반대로 성공한다는 보장을 받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바야흐로 땅이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닷바람 때문인지 이파리 가장자리가 누렇게 타서 걱정이던 제 2농장에는 가을에 덮친 태풍이 몰고 온 장대비로 나무가 3일 동안 물에 잠기는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다. 마치 물 댄 논에 심은 나무처럼 밭에 물이 가득했다.

결국 주위의 우려와 만류에도 감행한 나의 실험정신의 쓰린 패배였다고 나 할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가는 길 끝에 실패가 있다는 것을 알면 길을 돌아갈 것이다. 반대로 성공한다는 보장을 받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제 2농장 나무들의 윗부분을 전부 잘라내고 뿌리를 캐내서 그 곳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작년 3월 나는 그 나무들을 다른 밭에 심어서 제 4농장을 만들었다. 한쪽에는 나중에 농장카페를 열면 거기서 사용할 재료로 쓰려고 레몬, 하귤, 땡유지, 분깡, 한라봉을 심었다. 그러나 올해 1~2월의 계속 이어지던 한파로 이들 만감나무의 90%가 동사했다.

레몬이 추위에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하우스 시설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지재배를 감행한 면도 있었다. 여태껏 추위가 유난했던 2015년 겨울을 제외하고 제주에서 노지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기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이번에도 결과는 실패였다. 한여름에 낮을 들고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풀을 베어내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 5. 6차 산업으로의 도전 - 카페 '일출봉 아로니아'

주변에서 보면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은 계통출하라는 이름으로 싼 값에 팔려 나간다. 농부 입장에서는 판매에 대한 시름을 덜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지만 공들여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생과 직거래 외에 남는 물량을 직접 가공해서 팔려는 전략을 세웠다.

결국 작년에 또 하나의 계획에 도전을 했는데, 운이 좋았는지 제주 동부농업기술센터의 6차 산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었다. 이곳에 근무하시는 방 인경 선생님의 지도와 안내에 따라 30여 년 된 감귤 돌집창고를 개조하여 농장직영 체험카페를 열었다.

내가 직접 향아리에 담아 숙성시킨 아로니아청으로 카페음료를 만들어 판매하고, 생과를 이용하여 커튼염색도 하고 분말을 넣은 비누도 만들어서 사은품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아로니아를 활용한 푸딩, 쿠키, 식빵 체험에서는 체험객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 기타 가공품으로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생산)으로 100% 아로니아즙을 상품화했고, 이어서 아로니아 와인과 분말 상품화도 준비하고 있다.

이곳이 비록 도심에 있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안락한 카페는 아닐지라도 벽화를 그리고 전등갓부터 탁자까지 모두 우리 가족이 협동해서 만들고 칠한, 또 오래된 현무암 돌집창고를 원형 그대로 보존한 소박한 제주농부의 카페다.

지난 달에는 귀농교육생 40명이 와서 농장견학과 함께 가공품 체험을 했

다. 그날 연사였던 나는 나로 향하는 그 분들의 눈 속에 과거의 내가 거기 앉아 있음을 느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도전했다.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지키고, 내가 농사 지은 아로니아로 나와 주변의 건강을 지키며 농부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겠노라는 다짐을 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았던 날들의 연속이었다.

어쩌면 몸이 힘들고, 뼈아픈 실패를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도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일 그 때 시도하지 않았다면 나는 먼 훗날에 반드시 후회할 거라는 것, 또 지금까지의 실패가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을 것이며 이 길 끝에 내가 처음 세웠던 소박한 귀농의 꿈이 탐스럽게 영글길 소망한다.



## 그를 사랑하게 된 아줌마의 농촌생활 고군분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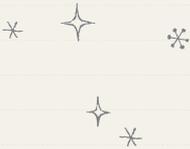


박호순 

필연이 아닌 한순간의 우연이었다. 농사의 농자도 몰랐던 내가 아무 연고지도 없는 흥성에 귀농한 것이다. 3년 전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면 나는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거의 편안함을 최대한 누리며 살고 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집 근처 100평 땅이 무료로 생겼는데, 함께 텃밭을 가꾸어보자는 제안을 하였다. 군포 소농학교에서 농사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였기에 맨땅에 그냥 무턱대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덥석 손을 잡았다. 뜻을 함께하는 5명의 아줌마들이 모였다. 농사교육을 받는 친구를 대장 삼아 우리는 그가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먼저 퇴비를 만들었다. 배운 대로 나누는 이 친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 퇴비를 만들어보라고 했다. 아파트 단지마다 모아둔 낙엽포대(담배꽂초, 비닐들은 다 골라내



퇴비더미가 거대한 동산을 이루었다.  
 버리지 않고 한데 모아 흙을 건강하게 하고  
 그 흙의 힘을 받은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나는 그만 <농사>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고)를 아줌마들이 짝을 지어 차에 실어 나르고, 각 집에서 아이들 오줌(한 병 당 500원을 주면서), 남편 오줌, 쌀뜨물을 재활용 페트병에 모으고,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통에 담아 한데 모아 퇴비를 만들었다. 퇴비더미가 거대한 동산을 이루었다. 버리지 않고 한데 모아 흙을 건강하게 하고 그 흙의 힘을 받은 작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나는 그만 <농사>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에 빠졌지만 농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고 다가가는 것이기에 나는 수원에서 일 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씨드림 토종학교>를 신청해 매주 토요일마다 광고산자락아래 밭에서 농사란 무엇인지를 조금씩 배워나갔다. 견학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때 홍성군 홍동면에 와서 마을을 둘러보고, 농부들을 만나고 농사짓는 삶을 들으며 바로 연고지도 없는 이곳이 내가 살아야 할 제2의 고향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남편을 잘 설득해 2015년 10월 우리는 홍동에 농가주택을 운 좋게 얻어 주말부부가 되었다. 삼 대가 덕을 쌓아야만 가능한 주말부부가 된 것이다. 막내는 초등1학년이라 별 탈 없이 잘 따라주었지만, 둘째는 5학년으로 둘도 없는 친구들과의 이별이 슬픔으로 크게 다가왔나 보다. 이사하는 당일 친구들의 작별편지를 보면서 눈이 붓도록 펄펄 우는 아이를 보며 나 좋다고 아이마음에 상처나 주는 나쁜 엄마라는 생각에 잠시 흔들렸지만, 아이들에게도 삭막한 도시, 경쟁하는 교육구조보다 시골살이가 더 살아가는 힘이 되리라는 확신에 다시 중심을 잡고 이삿짐을 실었다.

홍성귀농지원센터에 귀농할 예정이며 집을 구한다고 얘기한 지 이주일 만에 문전옥답이 있는 집이 연세로 나왔고 우린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하였다. 농사를 짓고, 내가 지은 농사로 자급을 하고 싶은 나였기에 집

앞뒤로 발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었다. 이사 당일 저녁 늦게까지 짐을 정리하고 남편은 다음날 출근을 위해 홍성역에서 서울행 기차를 탔다. 남편을 보내고 적막한 이 낯선 공간에 한가득 정리되지 않은 짐들 사이에서 나는 잠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주말부부의 이별도 매우 낯선 경험이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이 낯선 곳에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불안감이 밀려왔다.

이른 이사로 피곤했는지 아이들은 곧 잠이 들었다. 잠이 오지 않는 나는 잠시 멍하니 쌓인 짐들을 보다가 새로 도배한 천장을 올려다보았는데, 유난히 축사가 많은 홍동이라 그런지 하얀 도배지에 빼곡히 붙어있는 파리떼들이 나에게 환영인사를 해주는 첫 이웃들이었다. 새벽 빛소리에 눈을 뜨니 천장에서 드룩드룩 득득 발로 밟는 소리가 들렸다. 털 많고 기다란 꼬리에 회색빛갈 뽀내며 달리는 쥐들이 다다닥 닥다다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아침잠을 깨우는 두 번째 이웃들이었다. 거미도 무서워하고 작은 벌레도 무서워 어찌지 못하는 나를 반갑게 맞이해 준 이웃들과 나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도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홍동에 귀농한 첫 날 내게 다가온 감정들이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금방 익숙해지는 법이다. 부담스럽고 거북하지만 내 첫 이웃들과 나름 거리를 두며 적응해갔다. 때론 살생도 하면서. 마을 한 가운데 집을 얻어 많은 지인들이 걱정스런 말을 건네었다. 시골 어르신들은 그냥 막 문 열고 들어오고 일 도와달라 하고 외지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등등 귀농한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나에게 전해주었다. 무조건 인사를 잘하자. 아이들에게도 마을 어르신들을 뵈면 할머니, 할아버지라 생각하고 인사를 잘 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였다. 이사 오자마자 떡



돌리며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드렸다. 지인들이 건넌 말들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거리였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이 인사를 잘한다며 젊은 새댁(내 나이 40대 중반이지만 여기에선 새댁으로 통한다)이 아이들이랑 이사 왔다고 반겨주셨다.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에서 어르신들만 있는 이곳에 우리는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농사경험도 턱없이 부족한 내가 울타리도 없는 앞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평생을 농사지며 살아오신 분에게는 미숙함 그 자체겠지만 탓하지 않으셨다. 서툴러도 부지런히 몸 움직이는 나에게 어르신들은 평생 시어머님께 물려받아 키워온 도라지, 상추, 메주콩, 쥐눈이콩 등 씨앗들을 나누어주셨다. 50년 이상 이곳 흥성에서 정성스럽게 키워내고 지켜온 소중한 씨앗을 받은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책임감으로 진정한 흥동 윤월리 마을주민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마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을이 나와 우리가족을 품어준 것이다.

농부들 각자가 농사일에 다양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도 다양한 작물을 서로가 조금씩은 다르게 지으신다. 농사는 때를 알고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한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내가 철을 잘 알아 농사짓기란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어르신들 심을 실 때 맞추어 심고 모르는 거 여쭙어 보면 농사관련 책에서 말해주지 않는 알짜배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호미로 시간 날 때마다 흙을 긁어줘야 해. 그래야 흙이 숨을 쉴 수가 있어. 흙이 숨을 쉬어야 바람도 물도 잘 통하는 것이야. 도라지는 2~3년에 한 번씩 옮겨줘야 해. 그래야 더 크게 자라. 유월태는 음력 6월에 거둔다고 해서 유월태라고 해. 이걸 여름에 콩 국물 해먹으면 고소한 것이 맛이 있어. 풋콩일 때 그냥 믹서기에 갈아 먹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분들의 산경험이 아닐까. 아직은 힘이 있어 논농사.

밭농사를 하시지만 한 해가 거듭날수록 몸이 힘들다고 말씀하신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이제 이 마을엔 누가 살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논과 밭들은 어떻게 될까? 조금씩 논이 흙으로 채워지고 거대한 비닐하우스 여러 동이 채워진다. 넓고 넓은 논에 물이 채워질 때면 잔잔한 바다가 연상되고 벼가 익으며 바람에 흔들거리는 황금빛 물결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그래도 흥성에는 귀농자들이 매년 조금씩 들어와 정착을 하고, 젊은이들도 많은 편이지만, 여전히 삶의 경제적 무게 앞에서 밝지만은 않아 떠나는 이들도 존재한다.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귀농정착에 대한 고민과 실천방안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젊지 않은 나이에 농사짓겠다며 겁도 없이 내려온 나는 나름 꼴사나운 가치를 내세워 기계 안 쓰고 온전히 내 육체만으로 농사일을 하겠다며 덤벼들고 있다. 그러니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고 호소한다. 500평 넘는 논, 밭을 호미와 낫만 들고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니 무릎은 삐극거리고, 허리는 기억자마냥 구부러져 펴기도 힘들고, 손가락 관절 마디마디가 마치 로보캡 손가락 마냥 움직이며 통증으로 나를 괴롭힌다. 때론 다른 이가 왜 그리 고생을 하는지 묻는다. “왜?”라는 질문이 고군분투하며 농사짓는 나에게 답을 찾게 해준다.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놓지 못하는 재미가 있다.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은 수확량을 늘리고 고생을 덜할 순 있다. 하지만 농사를 손수 지으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법씨를 채종하고 손으로 모를 내고 낫으로 풀을 덮어 비료를 대신하여 영양분을 주고, 발탈곡기로 돌이 합쳐 법씨를 털고 까락을 제거해 도정하는 이 모든 과정에 내가 있다. 또한 내 몸을 스스로 사용할 때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다. 과한 생산과 수확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지혜를 알게 해주는



것이 농사라는 생각이 든다.

귀농해서 단지 농사만 짓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마을공동체라는 말이 나는 참 좋다. 자연 속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함께 어울려 각자 위치에서 살아간다. 자연이 나에게 알려준 것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풍요로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마음의 풍요로움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안에서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마을에 뜰방이 있어 자원봉사를 하며 농사일로 힘든 내 몸도 보살피고 마을 분들의 건강도 보살피드리고 있다. 뜰방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평생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들이다. 허리, 목, 손가락, 무릎 관절 통증 등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뜰방에 오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놓아드리는 뜰을 뜨고 나면 시원하다고 하신다. 몸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뜰방은 사람들이 모여 남편 얘기, 농사얘기, 며느리 얘기 등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사랑방으로 정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삼농이독, 삼일은 농사일을 하고 이들은 동네아이들과 책을 읽으며 각자의 삶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마을을 위한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이 내게 가르쳐 준 삶이리라.

공자 왈, "나이 사십에 의혹됨이 없고, 오십엔 하늘이 명하신 내 사명을 알고..."하셨는데, 사십이 지나 도시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개인적이고 소비하는 것들을 벗어나 나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귀농에서 찾고자했다. 3년이 지난 귀농에 조금의 의혹됨이 없다. 이제 오십 문턱 앞에서 하늘이 명하신 내 사명은 무엇일까? 작은 농사를 지으며 땅을 살리고, 원래 우리 삶 속에 자연스레 깃들어 있었지만, 사라져 버린 친밀하고 따스한 관계의 그물망을 살리는 것이리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마을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며 자라고 마음의 씨앗으로 남겨놓기를 바란다.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사시사철 아름다운 하늘과 꽃과 나무를 보며 몸으로 계절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 힘듦, 슬픔, 분노를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흔들림 없이 타박타박 걸어가리라 믿는다. 젊은 시절 잠시 떠나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믿으며 그저 나는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다.

바쁜 시기이다. 밭에는 풀들이 자라고 곧 모내기를 하고, 장마 전에 감자를 거두고 콩을 심어야 될 유월이 오고 있다. 인디언들은 유월을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넘치는 누리달이라고 한다. 토마토도 가지도 고추도 주렁주렁 열리는 달, 애기 거미들도 거미줄에 대롱대롱 매달리며 때를 기다려 스스로 살 준비를 하고, 온갖 곤충들이 작물들 사이사이에서 짹짹 하며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선크림 잔뜩 바르고 호미 들고 낫 들고 밭으로 나가보자.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흙처럼,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처럼 나도 소박하게 살되 풍요롭게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보자. 이제 다시 말하고 싶다. 나에게 귀농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고.

## 대문 앞으로 찾아온 마음



정예진

지난 10여 년 간 밤낮을 바뀐 살며 악착같이 지켜오던 도시락 회사를 내려 놓고 귀농을 결정했을 때 난 두려웠지만 두려워하면 안 되었다.

어리고 어린 아직 병아리 같은 우리 아이들이 밤을 새워가며 일하는 엄마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생각은 곧바로 결심으로 굳고 그 결심은 행동으로 빠르게 이어졌다.

그렇게 우리가족은 충남 금산으로 귀농을 했다.

밭흙을 팔고, 부동산의 문턱을 신발 뒤축이 다 닳아빠지도록 드나들며 온갖 텃세와 외지인에 대한 낯설음의 시선에 불안해하며 몸과 마음이 시들어 갈 때 쯤 비록 비워진지 오래된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 예산에 맞는 적당한 집을 구했고 학교도 가까웠던 터라 낯설었지만 먹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

록 정착을 결심했다.

난 지난 10여 년간 일요일을 뺀 모든 날을 밤 낮 을 바꿔가며 일을 해왔다.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고 그 전쟁 같은 생업의 난 속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매일 밤 가게 구석에서 곁엔 있지만 만지지도 못하는 엄마 얼굴을 그리며 일하는 내 등 뒤에서 자랐다.

그 마음을 보상이라도 하고픈 마음에 이사하던 첫날부터 아이들을 향한 지극정성의 나날들을 보내리라 마음먹고 오직 하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려 애썼다. 손님을 위해서만 하던 요리를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파란 캐노피로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직접 운전하여 등하교를 시켜주며 그간의 빗더미처럼 올라앉아있던 마음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려 나를 애를 쓰고 있었다. 그렇게 새로운 삶속에 마음을 파묻고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려 마을 회관 앞을 지날 때였다.

주민 몇 분이 회관 앞 정자에 앉아 소리 없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느껴졌다.

40년 가까이 도시에서 살던 시간들은 나를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신감이라 가르쳤고 그게 당연했던 나는 쿨 하게 그 시선을 비껴 지나치며 대문으로 들어섰지만 왠지 모를 불편한 마음에 슬쩍 짜증이 났다.

마을로 이사하면서 나를 인사한다고 떡도 돌리고 했는데 내가 뭘 잘못하더라도 한건지 나를 따라 다니던 그 불편한 시선을 기억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돌아온 신랑과 그날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딱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없었다.

며칠 후,아이들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면담이 있어 급하게 대문을 나서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밀어내니 대문 밖에



웬 자루가 하나 얇전히 놓여져있었다.

이게 뭐지? 나도 모를 불안감과 당황함에 그 자루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택배 아저씨가 배달을 잘못 하셨나 싶어 담장에 슬쩍 기대어 두고 찾으러 오시겠지 하며 급한 마음에 대문을 나섰다.

학교에서의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그 자루는 그대로 있었다.

끼깅대며 집안으로 들여놓고 궁금한 마음에 자루를 열어보니 새하얀 쌀이 소복하게 자루 가득 들어있었다.

하루를 꼬박 쌀 주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던 우리 부부는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쌀 주인을 물어보나 고민하던 중 집을 나서는데 대문 앞에 또 한번의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빠알갈게 익은 토마토 한 바구니가 예쁘게도 앉아 우리를 올려다 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누가 이걸 여기에 두었는지 궁금할 새도 없이 그날 이후 아침 저녁으로 대문 앞엔 가지 한 봉지. 상추 한 가득. 무우와 대파. 파랑 고추 빨강고추가 색을 곱게 입고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기다려 보기로 했다.

누가 이걸 가져다주시는지 누가 우리를 위해 이런 손길을 내미는지 기다려 보기로 했다.

조잘거리며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누군가와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듣고 슬쩍 내다 본 마당에는 둥근 호박 한 바구니를 들고 계신 아랫집 할머니가 서 계셨다.

얼른 달려 나가 무거운 저 바구니를 들어드려야 하는데 내 안의 낮설음이 자꾸만 내 걸음을 붙잡았다. 할머니는 바구니를 아이들에게 건네주시고

총총히 사라지셨다.

번득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가 건네는 바구니를 받아들고 곧바로 대문 밖으로 달려 나갔다.

길가 담장 밑에서 잡초를 뽑고 계시는 할머니를 뵈 수 있었다.

“아, 이런 건 그때그때 뽑아 줘야 해. 안 그럼 사람도 안사는 집 같을 거여.

이 집은 오래 비워 있어서 풀씨가 많이 떨어졌을 거여.”

내가 온 걸 보시고도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내시는 할머니 등을 가만히 바라보다 용기를 내었다.

“호박 감사해요 저희 집에 무우랑 대파도 할머니께서 주신 것이지요?”

“감사는 무신...

나는 엇그저께 상추 좀 속아다 줘지.

다른 분들도 들리셨을 거여. 이 집에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아마 대문 앞에 두고 갔을 거여.”

그제 서야 나는 알 것 같았다.

우리 집 대문 앞으로 찾아온 것은 마음이었다.

나를, 우리를 생각하는 마을 분들의 마음이 대문 앞으로 찾아 온 것이었다.

그때 지나시던 한 아주머님이 그렇게 서있는 나를 보시고 이내 오셔서는 “나 부녀회장이여~ 쌀 잘 받아 넣었는가? 습한데 있으면 안 좋으니 어디 잘 두고 먹어야해.”

쌀자루의 주인은 부녀회장님이셨다.

무우와 대파는 옆집 혼자사시는 할머니 것이었고 예쁜 토마토는 토마토 농사를 지으시는 김씨 아저씨의 것이었다.

이사 온지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우리에게 어쩌다 이토록 많은 마음들이

손님을 위해서만 하던 요리를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을 만들고  
피란 캐노피로 방도 예쁘게 꾸며주고 직접 운전하여 등하교를 시켜주며  
그간의 빛더미처럼 올라앉아있던 마음의 먼지를 훌훌 털어내려  
나름 애를 쓰고 있었다.



찾아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신 부녀회장님의 이야기는 담장 밑 잡초처럼 이름 없이 살고 싶었던 병든 내 마음을 치유하게 했고 상했던 마음의 고풍을 실컷 내뱉게 했다.

순간 나도 모르게 벌컥 마음이 쏟아졌다. 벌컥 벌컥... 그칠 줄 모르던 마음을 손등으로 훑치며 누가 볼 새라 서둘러 돌아서는데 붉게 물든 내 시야로 큰 아들 녀석이 달려 들어온다.

눈물을 감출 새도 없이 들켜버린 내 얼굴을 나와 같은 눈으로 바라보며 한마디 툭 던지는 녀석 때문에 어른인데... 나는 어른인데...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

“엄마. 울지 마.”

사실 아이들은 밤새 곁을 지켜 주지 못하는 엄마 때문에 불안장애를 겪어야 했다.

다 크도록 이불에 오줌을 싸고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밤새 불면증에 매일같이 눈이 충혈 되고 학교에 가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다.

도시락 회사의 특성상 오전 주문 건을 맞추려면 밤을 새워 일하는 날이 허다했고 일과 삶 중간에서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잃고 말았다.

먹고살려 했던 일이 결국 아이들을 병들게 했고 아이들을 아프게 한 그 삶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온 건 아이들의 슬픈 눈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내 자신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잃어가며 살고 싶지 않았기에 새로운 삶속으로 겁도 없이 무작정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이사하던 첫날, 마을 분들은 논의를 하셨더랬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빈집에 사람이 들어오니 마을이 다 환해지더라고...



게다가 아이들까지 함께 왔으니 멀리 나가있던 자식이 돌아 온 것처럼 돌  
보자고.

그래서 반가움과 환영함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데려다 인사시키고 하면  
노인네들 텃세 부린다 할까봐 그냥 성의표시 하자고 논하셨다고.

그렇게 모인 마음이 가지 한 바구니가 되고 고운 색 고추가 되고 듬직한  
쌀자루가 되어 우리 집 대문 앞으로 모인 것이었다.

나도 오랜 시간 지쳐있던 내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던 터라 얼굴도 잘 모  
르는 마을 분들께 인사드리기가 드리기가 쉽지 않아 이사 떡 한 조각으로  
대충 넘어가려 했던 생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이 땅에 우리 네 식구 툇 떨어져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농사일을 시작하며 부딪혀 오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어떻게 견뎌야  
하나를 고민하기에 바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었다.

그리고 혹여 귀농인 이라 하여 텃세 할까봐 있는 듯 없는 듯 살자 마음먹  
은 우리 부부였다.

그러나 마을 분들은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여러 가지 농사의 어려움은  
하나씩 그 도움의 손길로 해결되어갔다.

그렇게 우리 네 식구... 우리 마을 사람이 되었다.

비록 내 살점 같은 회사를 내려놓고 주위의 온갖 걱정과 염려를 뒤로하고  
선택한 삶이었지만 절대 후회 하지 않는다.

마을 분들의 마음을 본 이후로 나는 여기 이 낯선 땅에 서있을 충분한 이  
유를 찾았다.

나는 지금 해바라기 꽃 농사를 짓는다.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하여야 하기에 밭의 노란 물결은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을 곳곳에는 내가 나눠드린 해바라기 꽃이 노오란 얼굴로 웃고 있다.

나도 그 누군가의 대문 앞 마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해바라기 한 송이에 그 간의 감사를 다 담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서툰 손길로 키운 꽃 한 송이에 그렇게도 좋아하시고 웃어주신다. 우리네 해바라기처럼.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귀농의 행복은 매일 그렇게 나를 찾아오고 있다.

때론 알록달록 고추 바구니로 또 때로는 예쁜 토마토로

그 어떤 감사의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를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나는 오늘도 열심히 해바라기를 심는다.

또 누군가의 대문 앞 마음이 되기 위하여...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 일반부문 |



### 최우수상

감곡 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  
성의정

### 우수상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  
이정이

아! 햇살 좋은 농장  
최태필

### 장려상

18년 초보 농사꾼과 시골생활 전문가  
박선녀

황금 뜰에서 다시  
이기순

육은 제가 먹을게요  
전경령



## 감곡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한 여자



성의정

나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친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한달만에 농촌마을인 의령군 감곡마을로 시집을 왔다. 대기업을 다니며 독신으로 살갓다던 내가 농촌 총각에게 시집을 온 일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겐 놀라운 사건이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도시생활과 동생들 뒷바라지하던 친정집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나의 이상형과는 전혀 다른 농촌 총각에게 점점 빠져 들었다.

검게 그을린 그의 피부가 성실함을 말해 주는 것 같았고 남자다운 모습이 나를 설레게 하였다. 그와의 대화속에서 일찍 홀로되신 시어머니에 대한 잔잔한 사랑이 느껴졌다. 나에게도 홀로 계신 친정엄마가 계셨기에 시집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정말 잘 살아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먹었다. 앞으로 나에



게 닥쳐올 고난은 전혀 예감하지 못하고 꿈에 부풀어 남편의 손을 잡고 감곡마을로 향했다.

남편은 2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느라 마을에서 비켜난 곳에 축사를 지었고, 축사 옆 벽돌로 지은 단칸방에서 우리는 신혼살림을 차렸다. 산 밑 외딴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신혼 내내 10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댁에서 아궁이에 불 떼가며 밥 해먹는 문명생활을 해야만 했다. 처음엔 재미 삼아 밭 일도 따라 나섰다. 일을 시키는데로 곧 잘 하니 나에게 점점 많은 일들이 주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농사 일들이 나날 힘들게 만들었다.

시집와서 남편에게는 빛이 오천만원이 있다는 것과 아주버니들 명의로 된 땅을 빼면 300평이 유일한 남편의 땅이었다. 그야말로 가난한 집 막내 아들에게 시집와서 도시에 나가 있는 장남 뒤편까지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감곡마을엔 홀로되신 어르신 20여분이 살고 계셨고, 마을 앞으로 낙동강이 굽이 쳐 흐르고 있었다. 바다를 좋아했던 나는 시집와서 큰 물난리를 여러 번 겪었다.

태풍 '매미'가 마을을 덮쳤고, 마을 앞 제방이 터졌다. 농경지가 물바다가 되었다.

크고 작은 물난리를 매년 겪으면서 쓰러진 벼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시설하우스로 চাল옥수수 농사를 짓던 우리집은 봄이면 바람과 싸워야 했다. 바람이 회오리를 쳐서 비닐을 찢어버리고 쇠 파이프로 만든 옥수수하우스를 무너뜨렸다.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인지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알게 되었다. 산 입

에 거미줄 칠 수 없어 우리 부부는 새벽까지 낱을 새며 복구를 해야 했고, 농사가 잘못될 때마다 나는 농사 짓는 남편을 원망했었다.

그때는 몰랐었다. 내가 선택한 농촌의 삶이 그리 만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었다. 날이 갈수록 나는 여기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마을 앞을 지나가는 버스를 보며 친정집이 그리워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다. 옥수수하우스에서 옥수수 옆순을 따느라 마을어머니들이 일을 하셔서 들밥을 해야 했다. 점심을 가지러 온 남편에게 먼저 짜증을 내었다. “내가 이집 부엌덕이 나구, 촌에 데리고 와서 네게 해준 게 뭐가 있나구.” 남편은 내말이 끝나자 애써 지어놓은 음식을 얹어버렸고, 유리그릇이 깨지면서 나의 발가락에서 피가 나기 시작하였다. 점심을 가지러 온 남편이 늦어지자 시어머니께서 오셨다.

엉망이 된 음식을 보시더니 “촌으로 시집 온 여자 중에 일 안 하고 밥 안 하는 여자가 있더나. 다 너거들 잘 살라고 이고생을 하는데, 밥하는 게 귀찮거든 하지마라, 나도 이제부터 일 안할란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머리가 아파왔다. 남편이 미워지고 시어머니께 서운한 마음이 들어 한동안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이후에도 남편은 몇 천만원의 농기계를 외상으로 들고 오기를 반복하며 빚을 늘려갔다. 남편이 농기계를 사오는 날이면 어머니의 화살은 나를 향했다. 남편이 정말 미워졌다.

이런 저런 시골살이로 견딜수 없는 절망이 빠졌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으로 마산 동생 집으로 보따리를 싸다.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나는 감곡마을



로 돌아와야 했다.

나의 배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세 아이가 태어났고 나는 외로웠던 마음을 어린 아이들에게 의지하며 살았다.

농사가 만평으로 늘었고 젓먹이 막내를 가슴에서 떼어내고 들로 나갔다. 농사 일이 많이 힘들었지만 10년 만에 30평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었다.

단칸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자면서 부딪혔던 일들이 새집을 지어지면서 조금씩 해결되었고, 끝이 없을 것 같은 시집살이도 할머니의 손주사랑에 조금씩 너그러워졌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마을회의가 소집이 되었다. 젊은 사람이 없는 감곡마을에서 나는 어르신들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었다. 마을어르신들께서 새마을지도자를 맡아서 해보라고 하셨다.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뜻에 따르기로 했다. 새마을 부녀회 활동으로 다음 해는 자원봉사회원과 학교 운영위원장까지 맡아서 하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 힘든 농사일과 시집살이 할 시간이 줄어들거라는 불순한 생각으로 시작한 활동이었지만, 나에게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나의 외출이 뜻밖에 이웃들을 만나게 해 주었다.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여성 농업인들을 만났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늘 미소가 존재하고 활기가 넘쳐났다. 나와는 정 반대의 모습이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녀들과의 만남은 늘어갔고 나는 그녀들에게서 경험담과 노하우를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서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었다.

나와 같이 농업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게 나에게서 큰 위안이

되었다.

2011년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준 해였다.

마을이 생기고 남성들만 해오던 마을이장 자리를 마을어머니들의 손으로 여성이장을 뽑으셨다. 마을어머니들께서 열심히 활동하는 나를 눈여겨보시고 어머니들의 심부름꾼으로 만드셨다. 여성이 이장을 한다는 것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믿고 있는 농촌이었다.

3년간 이장직을 해 나가면서 나는 마을어머니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다.

농촌마을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이었다.

자녀들 도시로 떠나보내고 혼자 계시니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며 살고 계신다. 밤새 잘못되시거나 응급상황에 놓이는 일들을 지켜봐 온 나는 의령군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전국에서 벤처마킹하는 공동거주제를 2011년도에 감곡마을로 유치시켰다.

7명 이상의 마을어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위급상황에 처하면 마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오신다. 집집마다 들던 에너지가 절약되는 효과도 크고 혼자 지내면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시는데 함께 먹으니 밥맛이 꿀맛이라고 하신다.

여러 어머니들이 함께 살고 계시니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지만, 반평생을 함께 살아오신 가족같은 사이라 금방 풀어지셨다.

늦은 나이에 대학진학을 했다. 봉사와 이장직을 잘 수행하기 위해 배워야 했다.

맞춤형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오가며 사회복지와 보육교사,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추었다. 그리고 농식품부 여성리더십아카데미 과정부터



7명이상의 마을어머니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위급상황에 처하면 마을 젊은이들에게 알려오신다. 집집마다 들던 에너지가 절약되는 효과도 크고 혼자 지내면 입맛이 없어 식사를 거르는데 함께 먹으니 밥맛이 꿀맛이라고 하신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을 매년 받고 있다. 알면 알수록 길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선명해 지기 때문에 나는 배움의 길을 늘 걸어왔다.

마을의 위험한 환경들을 개선함은 물론이고, 내가 배운 것을 마을어머니 들께 다시 가르쳐 드린다. 건강박수와 한글, 전통놀이, 향토음식과정등을 가르쳐 드렸다. 어머니들의 특징을 살려 캐릭터를 개발하고 마을 홍보대사로 임명하여 역할을 드렸다.

2012년도에는 마을이장에서 6개마을 개발사업인 연화동권역사업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내가 큰 자리를 맡아 집을 비우며 봉사하는 동안 남편은 늘 힘들었다. 권역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위원장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 남편이 농기계 사고로 손을 크게 다쳤다.

봉합수술과 신경수술을 하는 남편 곁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심사를 받으러 갔었다.

남편의 희생은 있었지만 큰 사업의 위원장으로 6년간 나는 책임을 다해왔다.

가구수 가장 적고 힘없는 감곡마을이 주민이 행복한 감곡마을로 바뀌면서 경상남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출전하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어머니들 살아생전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 의령 의병박물관에서 '인생전시회'를 열어드렸다. 배고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살기 좋은 오늘로 만들어 주신데 감사드리며 나만의 효도를 해 드렸다. 자녀들이 어머니들의 인생전시회에 참석하여 추억의 시절들을 되돌아보며 딸로 아들로 며느리로 어머니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런 일들이 알려지면서 농민신문에서 취재를 왔고, 전국방송사에서 출



연재의가 줄을 이었다. 2011년도부터 20회 넘는 방송을 출연하여 감곡마을을 홍보하고 농산물판로를 개척해 왔다. 그리고 어머니와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었다.

SBS 창사특집 5부작 '최후의 권력'에 감곡마을 할머니들과 여성이장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감곡마을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되고 제작사는 그해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마을에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재능기부 해주려는 국악팀과 감곡마을 농산물을 사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하였다.

올해 나는 네이버 블로그 '정의정농장'으로 정보화농업인대회 SNS마케팅 활용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골사는 이야기를 전하던 블로그에서 고객들이 바른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다.

고객들이 직접 농장을 찾아오고, 나의 농산물을 믿고 지인들에게 소개하는 애정고객이 많이 생겨났다. 고객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는 재능기부로 다시 나누고 있다.

농촌 여성들에게 리더십 노하우를 전하고 농산물 직거래 방법을 가르치는 여성농업인 강사로도 활약 중이다. 의령군의 여성농업인들과 밤을 잊은 농부들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정보를 나누며 함께 하는 농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 해 감곡마을 어머니들과 작은한과 공장을 지었다. 어머니들은 당신의 힘으로 노년을 뜻있게 보내고 싶어하신다. 나는 그런 어머니들의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한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내가 자리를 비운 만큼 남편이 농사 일이며 집안 일, 아이들 일까지 더 챙겨야 했었다. 농기계를 여

전히 많이 사대고 정리정돈은 안되는 농부지만 우리 남편은 품이 큰 진짜 남자다. 아내의 능력을 개발해주고 응원해 주는 멋진 남자다.

늘 바쁘게 사는 나를 보며 남편은 이렇게 말한다. “정의정 나 안 만났으면 시집도 못가고 노처녀로 살았을근데 감곡마을로 시집와서 출세했다” 고 나를 놀려댄다.

나는 농촌마을로 시집와서 정말 출세한 여성이다.

##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



이정이

이른 아침부터 아들 둘과 남편을 들로 보내고 나면 며느리와 손주들이 회사와 어린이집으로 출근한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나서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 하고 텃밭에 나가 점심 찬거리를 다듬어 들어오면 그때서야 여유롭게 휴식을 즐긴다. 따끈한 찻잔을 들고 창밖을 보면 지난날 고분부투 했던 시절이 추억으로 피어오른다.

내 고향은 경기도 의정부다. 그 당시에는 군사 지역이라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군인을 멀리해라. 특히 하사 중사 같은 직업군인을 조심해라 색시 도둑놈이다”라는 우려의 말씀도 잊고 우연히 친구를 따라 군부대에 면회를 갔다가 장병 안내소에서 근무하는 헌병하사인 남편을 만나게 됐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은 자기는 안동농림고등학교 출신이라 영농 기술자 라면서 제대하면 고향에 갈 거라고 했다. 도시에서만 지내던 나에게 시골에 내려가서 살겠다는 말이 두렵게 느껴졌지만 만기전역이면 20년은 남았고 설마 당장 고향에 내려가는 것도 아닐테니 부모님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영농 기술자인데 설마 힘들게 살겠어? 영농이라는 말은 잘 모르 겠고 기술자라면 전문직인데 군 제대해도 어디 취직은 하겠지' 생각했다. 결혼하고 살면서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군인가족으로 검문소 소장 사모로 대 접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농산물만 사오면 가격을 물어 보았다. 고향에 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한 것 같았다.

결혼 3년차에 갑작스럽게 남편 고향으로 귀농을 하게 됐다. 시집에는 초 등학교 5학년인 시동생과 중학생인 시누이 둘, 연로하신 시할머니와 몸이 불편하신 시아버님 이렇게 살고 계셨다. 시어머님이 안 계신 시집은 살림살 이가 말이 아니었다. 남편은 부모 형제를 위해 고향으로 온 것이다.

그때부터 고생이 아닌 전쟁이 시작됐다. 말이 안통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 다. 간장을 '지렁물'이라고 하고 양말은 '다비' 부추는 '정구지' 멸치는 '이룩꾸' 부엌은 '정지' 개울은 '그랑' 등 수없이 많은 사투리가 나를 괴롭혔다. 어느 날 시 할머니가 국이 싱겁다며 '지렁물'을 달라 하시는데 지렁물? 그랑물? 노인 이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걸까? 싱거우면 간장을 찾아야지 왜 개울물을 달라 하실까 바다가 가까워서 개울물이 짠가 고민하면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이 간장이라고 알려준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땐 이렇게 넘기지만 남편이 없을 땐 난감했다.



어떤 날은 남편도 없는데 아버님께서 술안주 하계 ‘이룩꾸’ 달라하신다. ‘이룩꾸’가 무엇일까 노가리인가? 노가리는 없는데 어쩌나 생각하다가 “아버님 이룩꾸는 없고 멸치로 술안주 하세요” 했더니 웃으셨다. 또 한번은 산에 가야 하는데 다비를 내온나 하신다. 다비가 뭐예요 물어 보려 하다가 물어보면 다비가 다비지 머긴 그것도 모르냐며 역정 내실까봐 궁리 끝에 가을에 산에 가시면 머루 다래 라도 따 오시려나 하고 사료포대를 내어드리니 ‘독가리’ 포대는 와 하시면서 “문디자속 농사를 지으려면 서울여자는 와 델꼬 오노” 하신다. 아 내가 또 틀렸구나 하고 멍하니 서 있으니 시누이가 양말을 가져다 드리면서 “아버지 양말 이라고 하세요. 그래야 언니가 알아듣지” 한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말이 통할까 걱정이었다.

시집은 제사가 많은 큰집 이었다. 제사 지내는 걸 본적이 없는 덕분에 처음에는 가까운 친척들이 오셔서 제사 준비를 도와주셨다. 음식을 준비하던 시숙모님이 “질부야 제사준비 끝났으니 자네는 안방에 가서 판 피나라” 하시길래 이 밤에 제사상을 펴야 되는데 어찌 고스톱 판이냐고 여기 풍습은 그러냐고 신랑에게 물어보니 무슨 소리냐고 해서 숙모님이 나더러 안방에 다 판 피라 하신다. “제사를 지내고 놀아도 놀아야 되는 것 아니야?” 했더니 신랑은 웃으면서 이것이 판이다 하면서 제사상을 가지고 와서 펴 놓았다.

그리고 제사 지낸 다음날은 동네 어른들이 아침을 우리 집으로 드시러 오시는 것이었다. 전 날 잠도 부족한데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를 30인분 정도를 준비해야 했다. 또한 생전에 아궁이에 불도 지펴 보지 않은 내가 불을 지펴 밥을 하려니 남보다 시간이 두 배나 걸리는 것이었다. 한번은 점심을 한시가 넘어서야 머리에 이고 지고 들에 가니 인부들은 ‘끌쟁이’ 다 죽었다며 소리 지르고 남편은 여지껏 무얼하다 이제 오느냐고 골을 내는데 누가 죽었다는



그때부터 고생이 아닌 전쟁이 시작됐다. 말이 안통해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간장을 '지렁물'이라고 하고 양말은 '다비' 부추는 '정구지' 멸치는 '이룩꾸' 부엌은 '정지'

개울은 '그랑' 등 수없이 많은 사투리가 나를 괴롭혔다.





말에 무섭기도 하고 화를 내는 남편이 밭기도 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두 다리 뻗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 버렸다. 깜짝 놀란 아버님은 밥을 푸고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면서 미안하다고, 5년만 참자 동생들이 다 크면 도시로 나가자고 나를 달랬다.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늦게 밥을 쥐도 무어라 말을 못했지만 이러한 현실이 정말 힘이 들었다. 시어른들은 화장실에 갈 때도 비싼 휴지 쓰지 말고 신문지로 해결하라며 야단치셨다. 이사 올 때 가지고 온 석유곤로는 기름사기 힘들어서 쓰지도 못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들과 난 조그만 돌뿌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살림살이는 들여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집이다. 놀이 문화도 트로트에 뽕짝이고 말은 거칠면서 시끄러운 데다 시장도 비포장 도로에 버스타고 40분 걸려 가면 서울말 한다고 외지 사람으로 보고 물건값도 비싸게 받으려고 했다.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농사는 어찌나 힘이 들던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처음엔 남편 퇴직금으로 개와 흑염소를 사육했지만 보신탕용으로 고기가 수입되는 바람에 2년 만에 포기했다.

그 다음에 시작한 것은 양잠이었다. 누에 농사는 양복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작물이라며 남편은 큰소리치며 시작했지만 누에고치 올릴 때면 며칠 밤낮을 지새워야만 했다. 2등은 싫고 무엇이든지 일등을 해야 하는 성질인 남편은 무리하게 남보다 2배 3배로 일을 벌리곤 했다. 정부 보조사업을 받아서 잠실을 짓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무렵 중국산 누에고치 수입에 생산비도 건지기 힘들어 우린 또 한 번의 아픔을 격어야 했다.

궁여지책으로 다시 시작 한 것은 한우 번식우 사육. 한 마리에 오백만원 을 웃도는 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사서 키우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누에치

던 잠실에다 처음엔 열 마리만 사서 시작하자 일 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 낳으면 성공 한다고 하는 남편 말을 믿고 또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했다. 우린 당장의 생활을 위해서 소 사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농사와 같이 복합 영농을 했다. 담배는 공장에서 나오는 공산품인줄 알았는데 농산물 가공품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한번은 담배농사 지을 때 친정어머니가 찾아오셨다. 버스타고 오시면서 담배 밭에서 어떤 아낙이 허리춤에 비닐로 된 끈 같은 것을 차고 머리는 산발이고 손은 꼬질꼬질 한 모습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구나 생각 하셨단다. 딸집에 와서 딸이 담배 밭에 있다니까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밭에 와보니 당신 딸이 버스 안에서 본 그 정신 줄 놓아 보였던 불쌍한 여자였었다. 담배진이 묻어 머리는 산발이고 손도 덕지덕지 시켜 먼 상태였던 딸의 모습에 그냥 주저앉아 울으셨다. 집에 돌아가셔서 화병으로 병원치료도 받으셨다. 그런 친정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더 억척같이 일을 했다.

담배농사는 이모작을 할 수 있고, 콩깍지는 소 사료로 쓰고 콩은 메주를 만들어서 친정으로 보내면 언니 오빠가 팔아주었다. 담배는 계약 재배라서 판로 걱정은 없었다.

메주를 만들어서 잘 팔고 있을 때 농촌주부 소득사업을 해보라는 권유로 시설을 갖추고 근처 주부들과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 이웃의 콩을 사서 1년에 천오백만에서 이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었지만 공동사업이라 내손에 들어오는 수익은 적었다. 이 때문에 남편은 집에 일이 먼저라면 서 시간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매달렸다. 메주장사는 한 달이지만 팔다 남은 메주로 된장을 담가서 팔다 보니 집안살림과 밭일에는 점점 소홀해지게 됐다. 이런 이유로 함께하던 주부들은 전부 중도포기 하는 바람에 어



쩔 수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해나가야만 했다. 그래도 내 힘으로 무언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재미도 있고 자부심이 생겨 군청에 가서 사례 발표도 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있다고 농촌진흥청에 가서 설명회도 하게 됐다. 된장도 입소문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입 소문으로만 팔기엔 부족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인터넷 쇼핑몰이 없었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만 했는데 집에 일손도 부족한데 컴퓨터에만 매달려 있을 수 없어 된장사업의 꿈도 점점 멀어지게 됐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기능성 천국장을 개발했는데 주위 반응이 좋아서 곧 시판을 할 예정이다.

농업이 먹고살기엔 충분했지만 우리 부부만 하기에는 힘이 들어 기계공고를 들어가겠다는 큰아들을 안동생명과학 고등학교에 들어가라고 했다. 졸업하면 소 30마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리곤 남편은 소 수정사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하면서 열정을 쏟았지만 송아지 파동이 와서 의혹이 떨어지고 담배농사 지어서 나오는 소득은 대부분 소 사료값으로 들어갔다. 옆친대 덮친 격으로 소가 한 두마리씩 병이 들어 쓰러지면서 손을 놓게 만들었다.

우리 이전 한우물만 파자면서 담배농사에 주력했다. 담배농사 수년 만에 살림은 나아졌지만 담배 독 때문에 품팔이를 포기하는 인부들이 늘고 우리 부부도 중독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큰아들은 수원에 있는 농수산 대학을 나와 병역의무 교육 중이었다. 아들은 “아버지 우리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농사를 지어 봐요. 담배는 인부가 필요하지만 과수원은 가족들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리가 있는 설득이라 남편은 시장조사도 하고 교육도 받아가며 복숭아 농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과수원이 지금은 복숭아 13000평, 사과 7000평이다.

어릴적부터 농사는 절대 안 짓겠다던 작은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은 하지 않고 제 형과 같이 농촌에 살겠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 형이 농사지으면 제가 가공도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겠습니다. 몇 년뒤에는 생산자가 갑이 되는 시절이 꼭 올 거예요”란다. 식품전공을 살려 농산물가공 사업에 뛰어 들었다.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었다. 아들을 둘이나 농촌에서 끼고 산다며 주변의 눈초리도 따가웠다. 하지만 일본에 복숭아 과육캡을 만들어 수출도 하고 복숭아 병조림으로 가공을 해서 국내 판매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니 든든하고 믿음이 간다. 교육환경이 좋지 않아 자식을 위해 떠나는 이웃을 보면서 늘 아들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잘 커 준 것 같아 참 고맙다.

전에는 내가 촌에 살아서 불쌍하다며 고생한다고 세탁기 사주고 우리아들 옷을 계절 따라 사서 보내주던 형제들이 내 곁으로 하나 둘 모여들고 있다. 노후의 휴식처로 농촌을 선택 한 것이다. 30~40년 전엔 고향을 떠나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퇴직자들도 제2의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볼까 하며 모여들며 빈집엔 사람이 들어서고 여기저기 예쁜 집들이 지어지며 농촌은 활기를 찾고 있다. 힘이 들어도 고향을 지켜낸 고향지킴이들의 보람이다. 나의 삶도 지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손자 손녀 재롱 보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난 요즘 시골 정서에 맞게 아코디언을 배우고 있다. 남편은 색소폰을 배우고 손녀와 같이 민요도 배워서 틈만 나면 아리랑 곡조를 멋지게 뽑아낸다.

이제는 그 누가 인생을 말하라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내 인생은 단풍나무야 초록이 짙은 시절은 열심히 땅을 일궈고 지금은 주위를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이는 그러한 단풍.



나도 이젠 분위기 맞춰 트로트 뽕짝노래에 막춤 출줄 아는 촌담이라구.  
경상도 사투리도 구수하게 뽑아내고 시끄럽고 거친 말도 할줄 아는. 과일 한  
차 장바닥에 내려놓고 앉아서 손님도 부를 줄 아는 경상도 할마시! 이만하면  
촌담자격이 충분한 것 아닐까. 5년만 살겠다고 약속한 세월이 50년, 아니 숨  
이 다하는 날까지 이어지겠지. 이만하면 내 인생 잘 살아 낸 것 아닌가... 이  
젠 하늘에 계신 울엄마 눈물이 아닌 웃음 짓고 계시겠지... 우리 둘째딸 잘  
살고 있구나 하시고

## 애! 햇살 좋은 농장



최태필

“약 나왔습니다. 이걸 진통제구요, 물 조금씩 삼켜보세요!”

오른쪽 목에 커다란 밴드를 붙인 나는 모기소리처럼 “네” 하고는 물 한 모금을 조심스레 삼켜보았다. 내 곁엔 큰딸이 일주일 휴가를 내고 지키고 있고 작은딸은 잘난(?) 엄마 때문에 한 학기를 휴학하고 아빠 곁에서 오이박스 포장 일을 거들고 있다.

지난겨울, 국가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유방암과 갑상선 암 확진...

1월 19일 왼쪽 유방 부분 절개 수술을 했고 초기라 불행 중 다행으로 항암은 패스하고 서른 번의 방사선 치료를 끝냈고 오늘은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 병원에 입원이라고는 생전 처음인데다가 차가운 수술대기실에서 사지를 떨

며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냈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한 가지도 아닌 두 가지 암이 한꺼번에 온 엄마를 보는 딸들은 더 힘들어 보였다.

내 새끼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악착같이 내 자리를 지켜야하고 내 딸들에게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은 감동들을 나는 봐야한다.

내가 눈물이라도 보일라치면 두 딸들은 내 앞에서 앞곳은 춤을 춘다.

엄마 웃으라고...

한여름 같은 오월의 창밖을 보며 21년 전 오월을 떠올려 본다.

벧속의 아이는 점점 커가고 있고 여기저기 구인광고의 전화를 기다리는 남편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98년의 봄은 참으로 추웠었다.

임신 8개월이 되자 내가 일하던 스튜디오에서는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한 달 치 월급을 더 주시면서 자리 비워 놓을 테니 아이를 낳고 다시 일하자고 나를 설득했었다.

난 아직 괜찮은데...

아직 견딜 만한데...

참 고마운 인연이었다.

나는 21년전 그때 한 달 치 월급을 더 받고 그 길로 남산만한 배를 안고 늘 바쁜 큰댁의 일이라도 도와드리자며 졸랑졸랑 뒤통거리며 걷는 세살박이 큰애랑 셋이서 남편의 고향인 영월로 향했다.

98년 외환 위기였었던 그때 아주버님 댁엔 비육소 150두를 키우고 시설하우스에는 오이, 토마토를 하고 계셨고, 그 무렵 송아지 한 마리가 20만원까

지 하락했었다. 모두가 소 키우는 걸 포기하고 있을 때 시설하우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사료 값을 충당하고 계셨다. 남편과 아주버님께선 온 동네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소들이 좋아하는 풀들이 지천으로 넘쳐났기에, 하루에 1톤 트럭 두 대 가득 소 풀을 베러 다니시며 소들의 배를 채워주고 나는 처음으로 해보는 오이 박스 포장을 씬 없이 도와드렸었다. 매일 출하되는 작물들은 더 예쁘게 커가고 다른 농가보다 더 일의 속도도 빠르고 경매가도 더 좋다고 흐뭇해하시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였다.

형님은 내가 내려온 후 일주일 되던 날 가까운 제천에서 편안하고 예쁜 임신복 두 벌을 사 오셔서 당장 입으라고 하셨다.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얘기하고 예쁜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제발 그냥 쉬라고 하셨지만 불안하기만 했던 시간 앞에서 나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다. 아주버님께선 직장이 구해지기 전까지 일을 도와주시길 바라시면서 21년전 그때 80만원씩 월급처럼 따박따박 주셨고 박스포장 예쁘게 해서 경매가가 좋다고 내겐 매달 특별히 흰 봉투에 10만원을 더 주셨다. 기다려도 남편이 가고자하는 직장에선 연락이 없고 남편은 고향이 너무 좋아서 내 눈치를 보며 이 동네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댔었다.

신혼살림이라고 서울에서 4년 살다 내려왔으니 내 나이 딱 서른에 45도쯤 기울어져, 비오면 쓰러질 것 같은 빈 집에 남편이 그토록 바래왔었던 터를 잡았고 7월에 둘째를 순산했다.

예쁜 공주 둘과 무작정 고향이 좋아 시작한 시골 생활은 마음만큼 호락호락 하지 않았었다. 표고버섯을 일년 하다가 정보가 없는데다가 설부른 판단으로 2년을 못 넘기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접어야 했고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매일 출하되는 작물들은 더 예쁘게 커가고 다른 농가보다 더 일의 속도도 빠르고  
경매기도 더 좋다고 흐뭇해하시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모습을 보며  
나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없는 곳에서 만평을 임대해 강원도 하면 떠오르는 감자를 전부 다 심었는데 그해 감자 값은 폭락이었다. 애써 농사지은 농산물이 바닥을 치고 피땀 흘린 결과는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발로 뛰고 또 뛰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었다. 면사무소 뛰어가 별이 시원찮은 저를 좀 써달라고 호소했다. 그때 호적전산화가 막 시작될 때 일이 없는 겨울엔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 일을 했었고 5년마다 하는 인구조사도 한 번도 빠짐없이 했었다.

인생의 최대위기라 여겼었던 그 시기에 남편은 영농 후계자 신청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던가...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이 헤아렸는지 영농후계자가 되었다. 희망이 생기니 용기는 덤으로 생겼다. 별이가 없는 우리를 제발 좀 봐 주십사 건강보험공단에 내 처지를 고스란히 담아 편지를 썼는데 그때 돈으로 건강보험료 3500원을 차감해 주셨다. 보험공단 직원과 통화할 때 가슴이 울컥해 목이 메었다.

아이의 분유 값이 없어 결혼반지를 꺼냈었고 쌀이 떨어져 마지막 남은 내 반지까지 다 팔았었다. 시골의 여름 밤 하늘은 왜 그리 예쁜지 내 눈물은 코 끝을 타고 목젖을 타고 가슴을 적셨다. 들썩이는 내 어깨를 봤는지 남편은 한참을 우두커니 나처럼 밤하늘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후계자금으로 시설하우스를 지었고 오이를 심었다. 큰집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처럼 따라했더니 매일매일 우리 오이는 상한선이었고 가을 토마토 역시 값이 최고가였다.

한낮의 하우스 온도는 해마다 기록을 세우듯 더 올라가고 땀이 범벅이 되어도 내 통장에 돈이 모이고 그 돈으로 계획한 게 있었던 터라 힘 드는 줄 몰랐다. 여름 날 새벽 4시 30분이면 남편과 나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떠지지 않



는 눈을 비비며 일을 시작하다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이슬 맺힌 오이나 토마토 잎사귀가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빛날 때 나도 햇살 좋은 농장의 주인으로 빛나고 있음을 느꼈다. 황금 같은 새벽시간이야말로 하루 일과 중 최고의 능률이 오르는 시간이어서 남편과 나는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냈다. 그렇게 6년이 찰나처럼 흘렀다. 그 6년의 시간 속에서 나도 남편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햇살처럼 영월 땅에 정겨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햇살 속에 눈물과 한숨, 그리고 웃음이 함께 진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 나이 서른여섯 되던 가을 시골생활 딱 6년 만에 우린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신청해놓고 몇 년 전부터 미래의 우리 집을 설계하고 또 지우고 고치고 했었던 도안대로 마당에 잔디를 깔고 창문이 넓은 거실과 두 아이들 방은 예쁘게 만들었다.

입주하던 날 어머님께선 팔죽을 쑤셨고 큰댁 형님께선 시루떡을 이고 오셨다. 내가 설계한 내 집에서 집들이를 하다니... 그날 시어머님과 형님의 사랑이 나를 평평 울게 만들었다.

아주버님께선 십수 년을 우사에서 나오는 거름을 막내 동생 돈 한 푼 안 받고 내어주셨다. 거름 값이라고 들고 가면 동생네 자리 잡을 때까지 안 받으신다고 손 사례를 치셨다. 아주버님과 형님께선 남편과 내게 진정한 멘토가 되어주셨다. 98년 그 힘든 시기에 고향을 찾아 쉽 없이 달려와 꿈에 그리던 내 집과 내 땅을 소유한 것이 꿈만 같다. 힘겨웠던 시간 속에서 어느새 사회초년생이 된 첫째 딸과 인서울 대학 초년생이 된 둘째 딸이 곱게 성장한 것도 고맙기만 하다.

이제는 귀농, 귀촌하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나는 지금 한국 여성 농업인 영월군 연합회 정책 부회장의 직책을 갖

고 있고, 남편도 아주버님의 뒤를 이어 시설하우스 우리 동네 40농가의 작목 반장의 직책을 맡고 있다.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집에서 꾸었던 꿈이 찬란한 햇살이 되어 내 인생을 비추고 있음을 나는 안다. 나는 지금 원주 세브란스 병원 병상에서 다시 한번 꿈을 꾸다. 오이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토마토에 머무는 아침 햇살처럼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암도 나는 넉넉히 극복하고, 햇살 좋은 농장의 멋진 농장주로서 내 남편과 아이들을 지키고 영월을 지켜낼 것을...

내가 농사한 토마토와 오이 냄새가 문득 이 병상 가운데 풍겨오는 것 같다. 그 냄새가 내가 싸우고 있는 이 암세포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는다. 새벽 4시 30분이면 별떡 일어나서 분주하게 시작했던 하루하루가 웬지 그리워진다. 그때는 힘들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눈물겹도록 그리운지... 하루 빨리 이 병상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햇살 좋은 농장에서 이른 아침에 코끝을 스치고 지나가는 토마토와 오이의 싱그러운 냄새에 취하고 싶다. 그 냄새와 햇살이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암세포들을 넉넉히 물리쳐 줄 것을 나는 믿는다.



## 18년 초보농사꾼과 시골생활 전문가



박선녀

4월 29일 오전 5시 비가 내린다.

오늘 논에 모판을 내는 날이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다. 창밖을 보고 한참을 망설였다. 남편은 망설임도 없이 비옷을 입고 준비 중이다. 오늘은 2500판만 작업을 하면 된다. 25일 파종을 해 놓은 터라 오늘 나가지 않으면 싹이 너무 자라서 일하기가 힘들다고 하신다.

온몸이 천근만근이다. 어깨가 무거운 돌을 얹어 놓은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는다. 마음 속으로는 비가 더 세게 내려 일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 자고 있는 아들을 깨우고 마을회관으로 걸어가는 발걸음까지도 무겁다.

마을회관 마당에는 대평댁 아지매를 비롯한 마을 분들께서 벌써 모여 계신다.

“잠도 안주무셨능교? 벌써 나와 계시능교?”

“구 이장 오나. 신랑은 아까 오던데... 우리 이장님은 차를 운전 좀 해야 것다”

“봐라, 눈에는 남자들이 드가고 여자들은 밖에서 모판 떼어주고 그라믄 되 것제.”

“인자 일 시작 해 볼까나 비 오는데 옷은 따습게 입고 왔제. 새댁아 회관에 비옷 있다 비옷 입고 나오그라, 봄비에 감기 걸리믄 약도 없데이, 혼자 아픈 서럽데이 알제.”

비는 오는데 모판 작업은 시작이 되었다. 80세 이하 마을 주민은 다 모인 것 같다. 어제는 4500판을 작업을 하고 힘들만도 한데, 그래도 마을일이라 거들어 주신다고 오셨다.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다.

5시 30분에 시작된 작업은 부직포를 덮는 것을 마지막으로 두 시간 만에 일을 마쳤다.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 14명이 한 몸처럼 움직인 결과이다. 비를 맞고 하는 작업이라 걱정도 했지만 일을 마치고 나니 무거웠던 몸이 다시 가벼워지는 것은 기분 탓일까.

오늘로 우리 마을 모판작업은 모두 마쳤다. 마을회관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올해 농사는 대풍일 거라며 막걸리 한잔을 나눠 마셨다. 대평댁의 고시례로 한바탕 웃었다. 이런저런 농사 이야기로 새벽일의 뒤풀이를 했다.

이 마을에 이사 온지 18년째다. 37세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 생활을 한다고 주위에서 만류를 했다. 아이들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아이들이 자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우리 부부만 좋아서도 되는 일은 아니었다.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고 우리는 확신이 있었다.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한다면 자연을 사랑하고 소중함을 깨우치게 될 거라고 그 당시에는 확신을 했다. 하지만 고민을 오래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시골로 이사를 간다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지를 구입했다.

900평... 1999년 이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가 생긴 것 이었다. 다음으로 대지를 구입했다. 2000년 초, 대지는 마을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마을 안이나 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했는데 다행스럽게 현재 위치에 땅을 구입을 하고 용도변경을 하면서 바로 집을 지었다. 길가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말과 농사를 지으면 힘들다는 말을 느끼게 되었다.

마루의 위치는, 주방의 위치는, 대문의 위치는, 마을 분들의 간섭 때문에 집을 지으시는 분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실 정도 였다.

주인은 집을 짓는데 왜 나타나지 않느냐, 집주인은 누구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나는 등 많은 호기심을 본의 아니게 자극을 하게 되는 분위기 였다.

2000년 6월 20일 6살이던 큰 녀석과 4살짜리를 데리고 이곳에 이사를 오던 날, 온 동네의 관심 대상 1호가 우리 집이었다. 떡을 해서 아이들 손에 들려 마을 어르신들 집집마다 나눠드렸다. 관심이 있는 만큼 사랑으로 바뀌어야 했다.

마을 입구에 자리한 우리 집은 장날이 되는 5일 과 10일은 커피를 준비해 두고 마을의 사랑방 아니 작은 다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난 어느새 시골 다방 마담이 되어있었다.

"내 것보다 여러분들 것, 여러분들의 것 보다 우리 같이 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격 없이 저를 받아 주신 만큼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서 이사를 왔는지, 이사 오기 전에는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남편은 어떻게 만났는지, 부모님은 생존해 계신지, 형제는 몇이나 되는지, 아이들은 몇 살인지. 5일 과 10일은 이런 저런 이야기로 나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행여나 불일이 있어 우리 집이 문이 닫혀있으면 다음 장날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마을 어르신들의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고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친구들이 나에게 주책이라 말하기도 했다.

내가 딸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딸이 많아지는 것을 보니 시골아줌마가 다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 보내고 작은 텃밭에 상추도 심고 감자랑 들깨도 심었다. 풀과 새순을 구별하지 못해 뽑고 다시 파종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다.

집이 마을 입구라 장에 가시면서 모종을 가져 다 주시기도 하고 상추랑 파 등을 검정색비닐 봉투에 담아 대문 안에 넣어 놓고 가신다. 감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 했다. 잘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콩 심기, 고추 심기 등을 거들어 드리기 시작을 했다. 물론 잘 못해서 웃기도 했지만 이제는 숙련된 농부다.

마을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다. 이런저런 마을 사랑방 역할에서 온 경험을 가지고 마을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마을 어르신들의 대변자가 되어 가고 있었다. 우선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어렵고 비료대금을 비롯한 영농자재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 고령농들이 농사를 짓기에 힘든 구조였다. 무거운 비료를 경운기에 싣고 와도 집에서 내리거나 밭에서 내리기에 무리가 있었다.

농협에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무거운 것은 마을 별 배달을 부탁했다. 마을에서 농협 대의원으로 선출을 해 주셨다. 농협 처음으로 여성대의원이 되

었다. 견제가 시작 되었다. 마을에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생각의 차이였다. 마을에서 이사를 출마해 보라고 어르신들께서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다. 고민을 했다. 대의원도 이렇게 대하는데, 선거를 치른다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3개면이 합병된 농협이라 이사에 출마를 하면 3개면을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 남편은 무척 망설였다. 경상도 특히 이렇게 보수적인 곳에서 이사에 출마한다는 것은 뒤에서 들려오는 무수한 말들은 다 감내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등록을 했다. 남편은 남편대로 불출마를 하도록 권하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고 나는 나대로 세상에 태어나 억울한 욕이란 욕은 다 들었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들에게 듣는, 이렇게 까지 사람들이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지 아직도 나는 모르겠다.

농협이사가 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 농협이사 임기를 마치고 나니 마을에서 이장으로 뽑아 주셨다. 이곳에 이사를 와서 좌충우돌했던 나는 마을에서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몇 개나 가지게 되었다.

2012년 봄 마을 이장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내 것보다 여러분들 것, 여러분들의 것 보다 우리 같이 한다면 정말 재미있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마을로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격 없이 저를 받아 주신 만큼 마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마을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했다. 작은 마을이어서 잘 도와 줄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했다. 어느 마을이건 이상하게 도와주지는 않아도 방해만 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해꾼이었다. 그런 사람은 늘 그랬다. 또 특이하게 단체 회장님 같은 사람들이 더 심했다. 평범하게 농사를 짓고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농민들은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를 해 주었다.

80세 이상이 60%인 마을을 이끌고 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다. 좋아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었다. 밥도 같이 먹고 일도 같이 하고, 마을 풀베기도 함께하고, 꽃도 함께 심기도 하고.

경로잔치도 함께하니 더 좋아 하셨다. 마을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다슬기가 사는 하천으로 만들었다. 팔각정을 보수하여 여름에는 시원하게 쉴 곳도 마련하고 농약사고가 있어서 농약에 대한 안전교육도 하였다. 경로당에서 웃음 노래교실도 열었다. 신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며, 다른 지역의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견학도 다녔다.

이장을 맡게 된 6년은 너무 바쁜 날들이었다.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바쁘냐고 한다. 올 봄 6년의 이장임기를 마쳤다. 섭섭해 하시는 마을 분들.

하지만 다시 또 시작이다. 마을 공동으로 농사를 짓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감자를 600평 공동으로 심었다. 함께하니 너무 좋아 하신다. 콩도 심고 들깨도 함께 심는다. 올 가을엔 메주도 공동으로 작업할 생각이다.

그 사이 아이들이 자랐다. 자연과 함께 너무 잘 자라 주었다. 학원이 없는 세상, 아이들 말대로 방목하듯이 아이들을 키웠다. 논에서 메뚜기 잡고, 마을 앞 숲에서 도토리도 줍고, 하천에서 썰매를 타며 신나게 놀았던 아이들이다. 그렇게 티 없이 건강하게 자라 준 아이들이 있었기에 시골생활이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곳 생활 18년 아직도 나는 초보 농사꾼이다. 전문 분야가 없다. 주위에서 심는 것은 다 심고 있다. 소득이 많은 것은 그나마 벼농사가 전부이다. 하지만 시골생활은 전문가가 되었다. 함께 일하고 싸우고, 때론 흥도 함께 보고 울다가 웃다가 엉덩이에 뽀도 나보기도 하면서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나를 투명하게 다 보여주는 것이 어렵다면 어렵다.

때론 바보가 되어야 하고 또 때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나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골 유지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사 온 사람이라는 것과 여자라는 것 또한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말들이 나를 힘들게 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을 때도 늘 감싸주고 힘을 주었던 분들이 마을의 '댁'들이었다.

정월대보름날 마을 제사를 지내고 며느리를 맞이한 시어머니에게 지어주는 택호 '00댁'. 55세인 나도 며느리를 맞으면 새댁에서 '00댁'으로 불리워 질 것이다.

아직은 새댁이 좋다. 새집새댁, 이장님, 나를 부르는 정겨운 호칭이다. 좌충우돌 나의 시골생활은 실수 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는 마을의 00댁들의 웃음 때문에 길게 이어질 것이다.

## 황금 뜰에서 다시



이기순

밤새 내린 비 때문일까. 뿌영던 하우스 지붕이 낭랑 18세 소녀의 얼굴처럼 빛나고 눈부시다.

지그시 눈을 감으니 행복이란 단어가 몽글몽글 맺어지며 가슴을 평온케 한다. 어릴 적 농사짓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속이 상했다. 어려운 살림을 쪼개어 사시는 모습에 안쓰러운 반면 무작정 탈출하고 싶었다. 어른이 되면 절대로 농촌에서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내가 어릴 적 그 집에 와 있다.

나야 친정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남편은 불편할 거다. '겉보리 서 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랴' 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겉보리 서 말만 있어도 안한다는 그 처가살이, 남편 가브리엘은 천연덕스럽게 잘 견디어 주고 있다. 그

도 그럴 것이 빈손으로 내려왔으니 견디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파란 하듯 예산의 친정집으로 들어왔다. 친정어머니께서 2천 평의 농토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기댈 수가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하우스 일곱 동을 짓고 농사를 시작하니 농사가 잘 되어가고 있다. 첫째 농사로 수박과 멜론을 심었는데 어쩌면 그리도 잘 자라주는지, 5년간의 고생을 한방에 날려버리게 만든다.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나, 셋이서 인건비를 아끼느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한 보람이다.

이른 봄에 심은 멜론은 6월 중순에 수확예정인데 벌써 예약이 끝난 상태이다. 가브리엘 농장은 제2의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수익구조를 바꾸기 위해 직판과 직거래출하를 시작했고, 오이가 주가 되어 있는 구조에서 작목을 전환하여 수박과 멜론, 오이를 분산시켰다. 수익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 단어를 떠올리니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로 인한 시발점인 셈이다.

5년 전, 명예퇴직에 압박을 받던 남편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었다. 반도체 공정에서 품질 업무를 하고 있던 나는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다. 하루하루 남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끝내 나는 엄청난 결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시다. 오이 농사지으러.”

먹구름 낀 하늘처럼 무거운 표정이던 남편은 나의 제안에 두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금세 환해졌다. 남편의 표정에 나도 덩달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다. 큰소리치며 선동은 하였지만 실제로 농자도 모르는 나는 내심 겁이 났다.

‘에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밖에 더 하겠어?’

속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큰소리를 치며 짐을 싣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괜히 큰소리 친 건 아니었다. 가끔씩 남편의 고향인 충남 병천에 내려와 보면 오이농사 하는 친구 분들을 봐 왔었다. 여유롭고 멋지게 사는 그분들은 우리가 내려가기만 하면 도와줄 것 같고, 재배기술과 유통출하도 걱정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인생을 바꾸는 일은 참으로 순식간에 다가온다. 막연한 불안과 설렘을 안고 충남의 병천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다. 며칠 동안은 철따라 피어나는 자연의 꽃들 속에 푹 빠져 살 거라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 여유 속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꽉 채워졌다. 부랴부랴 남편친구에게 오이하우스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옆 동을 구해 도지로 얻게 마련해 주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여 농사를 잘 짓고 성공하면 고마움을 갚을 거라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너무도 순진했다. 농촌의 현실이 어떠한지 흠을 일구는 손길이 얼마나 힘든 것이라는 과정은 아예 생각도 안했다. 무작정 농사에 매달린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나면 현실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꿈속의 달콤한 환상에서 깨는 데는 그리 많은 나날이 필요치 않았다.

우리 집만 오이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일만 죽어라 할 뿐 소득이 없었다. 무엇보다 불편한 컨테이너에서의 생활은 녹초가 되어 들어오면 덥고 숨이 막혔다. 고단하여 누워도 등이 불편했다. 그도 그냥저냥 참을 만 했다. 제일 힘든 건 불일을 쉽게 보지 못하는 이동식 화장실이었다. 작은 공간에서 속을 비우는 과정은 힘들었고 참을 수 없는 슬픈 현실 앞에서 마음도 비워나가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살았을 때는 아파트가 있었고 누릴 것 다 누리며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살았다. 귀농의 현실은 자급자족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문화생활은

어림도 없었다. 날이 갈수록 실망이 커져갔다. 내가 왜 오이농사를 짓자고 선동했는지 가슴을 치기 시작했다. 농사의 기본 상식도 모르면서 뛰어난 오이농사, 무엇보다 추락하는 농산물 품질과 가격에 주저앉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새밭에 피를 문힐 정도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기까지는 갑자기 몰려오는 일은 없는 것이었다. 한 알의 무식도 한 포기 농산물도 고된 시련의 값을 치러야만 알게 되는 것인지. 귀농 첫해, 그리고 이듬해, 그리고 또 다음해까지 연속 3년 동안 오이농사는 실패했다. 우리에게 위안의 링크조차 건네주질 않았다. 누가 일거리 없으면 '농사나 짓지 뭐'라고 읊조렸던가. 해보지 않고는 전혀 알지 못하는 고단함과 서러움이 가슴을 치게 만들었다.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다.

어제가 오늘 같은데 이자와 세금 내는 날은 성큼 코앞에 들이닥쳤다. 다달이 쌓여가는 채납고지서에 아연실색하곤 뒤돌아서면 밀리는 보험료에 이르기까지 운영자금이 바닥이 났다. 그 와중에 자존심을 더 건드리는 이웃의 속삭임이 귓가를 짜증나게 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며 농사지으러 내려왔느냐며 고소하다 라는 식의 수군거림이 가슴을 후벼뚫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고물장수까지도 우리 흉을 보았다. 뒤통수가 몹시도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왜 우리 오이 밭만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며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했다. 그 이유를 아주 뒤늦게야 알게 됐다.

우리가 농사짓는 하우스는 10동이다. 1500평 땅이 매해마다 연작피해와 선충 때문에 소출이 나질 않는 것은 토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친구는 그런 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통 털어 오이농사에 투자 할 때까지 말 한마디 해 주질

몇 차례 강의를 하고 나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에 더 실감하고  
걱정되었다. 빨리빨리에 능숙해진 우리,  
비료주고 약 뿌리며 농토를 죽이고 있음에  
반성을 한다.



않았던 것이었다. 알면서도, 그런 땅을 우리에게 건넨 고향 친구가 원수 같았다. 믿을 놈 하나 없구나. 공부를 하자. 땅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공부를 시작했다.

퇴비를 직접 만들고 경루에 손발이 얼어붙도록 부엽토를 채취하고 짬짬이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업을 받았다. 농사만으로도 지쳤지만 배워야 정식의 농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고단함을 잊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우스에서 일을 하다 보니 남편은 속이 쓰리다고 했다. 역류성 식도염이었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침, 저녁 오이를 갈아 주고 달여 주는 일이었다.

그러던 차에 '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오이로 오이 즙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했다. 보통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이 사과즙이나 배 즙을 짜는 것을 생각해보니 오이도 가능성이 있을 것만 같았다. 흥분이 되었다. 오이를 씻고 OEM 가공을 하여 즙을 만들어 보니 맛도 품질도 괜찮은 것 같았다. 곧바로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눠주니 반응이 꽤 좋았다.

우리 농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커피대신 오이 즙을 대접하며 선전하기 시작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서 알렸더니 지인들과 먹어본 사람들이 제법 구매를 해주고 있다. 사실 큰돈은 못되었다. 그래도 작게나마 살림에 도움이 될 정도라 감사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말을 실감할 즈음, 아니 이제 조금 숨통이 좀 트는가! 했는데 풍량을 만났다.

2016년, 초여름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놀라서 소리를 지른다. 이상기후로 하우스 온도가 40°C에 육박하고 오이의 생상점이 다 타죽어 버렸다. 밤낮으로 이 녀석들을 살려 보려고 울부짖으며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인간의 힘으

로는 역부족이었다. 기후변화 속에서 극성부리는 진딧물과 바이러스는 자고 나기만 하면 더욱 극성스럽게 달라붙었다. 지친상태에서 손해를 볼 수가 없자 순간, 농약이 떠올랐다. 농약 방 앞에서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을 했다. 하지만 우린 친환경오이를 생산하는 농부였다. 농약을 뿌려 델 수가 없었다. 약을 칠 수가 없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눈물인지, 땀방울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수없이 내 볼에 흘러 입안으로 스며들었다.

비록 가난하고 귀농인의 농부이지만, 신념을 소중히 해야 하기에 우리 부부는 40°C의 열기가 광기처럼 넘쳐나는 하우스 안에서 부등켜안고 엉엉 울며 서로를 달래주었다. 폭력 같은 살인 더위 앞에서 오이가 타 죽어가고 그것을 뽑아내는 농부의 심정은 자식을 키우는 보모님의 마음과 같은 거다. 3일 밤낮으로 앓다 남편이 쓰러졌다.

철없이 귀농하여 빗덩이에 앉은 우리는 떠나야만 할 위기에 처했다. 이즘에야 겨우 오이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데 막상 갈 곳이 없었다. 풀려진 두 다리에 간신히 힘을 주며 친정으로 찾아갔다. 엄마가 웃으며 반겨줬다. 엄마가 환하게 맞이해 준 웃는 모습에 우리는 다시 시작을 외쳤다.

누군가 귀농을 한다면 연습하면서 알아보고 단단히 다짐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있다. 실패의 덕일까. 농협대학과 기술센터에서 실패에 대해 강의를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당황했지만 누군가 더 이상 나처럼 철딱서니 없이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선뜻 나섰다. 주재는 더 그럴싸하다 '실패한 농업은 없다'였다. 몇 차례 강의를 하고 나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는 것에 더 실감하고 걱정되었다. 빨리빨리에 능숙해진 우리, 비료주고 약 뿌리며 농토를 죽이고 있음에 반성을 한다.

돈은 잃었지만 사람이 되어간다. 이제는 땅을 밟으면서 흙에 대고 매일 절

을 한다. 흙이 있는데 기죽을 게 없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우스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린 다시 일어서고 있다. 내 고향 황금뜰  
에서.

## 욕은 제가 먹을게요



전경령 

“아버지요 귓구멍이 막혔어요?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끼던지, 앞으로 가란 말 안 들려요? 앞으로 가라고요 앞으로”

온 들이 떠나가도록 남편은 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옆에 같이 일 하던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차에 타고 계시는 아버님은 얼굴빛이 붉 으락푸르락 한데 같이 대거리를 하자니 동네 창피할 것 같아 참는 눈치시다.

이 상황이 너무 민망해서 나는 “아버님 내려오세요. 제가 할게요. 욕을 먹 어도 제가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했더니 내 말에 기분이 좀 풀어지셨는지 “됐다 마 놔두고 욕은 제가 먹을 게요 하고 글이나 하나 써서 어디다 보내봐 라” 하셔서 한바탕 웃고 넘어갔다.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그날의 상황 설명을

좀 하자면 이렇다.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집에서 4월, 5월은 아플 시간 이 없어서 아프지도 못한다고 할 만큼 바쁘다. 벼씨를 파종해서 모를 키우고 논으로 내는 일은 일 년 농사의 시작이니 그것이 절반의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일인지라 평상시에도 불같은 성격의 가족들은 더 욱더 까칠해져서 조그만 일에도 언성이 높아지기 일쑤다.

벼씨를 파종해 보통 5일 정도 육묘장에서 키워 논으로 나가는데 올해는 날씨가 갑자기 뜨거워 삼 일만에 뿌리를 다 내려 버렸고 더 놔두면 다 들어 붙어 엉기게 생겼다. 내일부터 이틀간 폭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오후에 급하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자기 밭에 일하고 있던 사람들을 가까스로 불러온 데다 어둡기 전에 일을 끝내려니 모두 다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다. 육묘장에 있는 모판을 지게차로 들어 트럭에 싣고 논으로 운반하는 일이나의 담당이고 내가 싣고 온 차를 받아서 논에 넣기 쉽게 조금씩 차를 이동시키는 일을 아버님이 하시고 논안에서 이송기로 전달되는 모판을 논에 넣는 일을 남편과 어머니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서로서로 신호가 맞지 않으면 모판이 논바닥에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부딪치기도 하고 엉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진다.

차에 타고 있는 데다 귀도 약간 어두우신 아버님이 미처 신호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남편이 그렇게 위아래도 모르는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댔던 것이다. 평상시 말이 좀 거칠기는 해도 표현을 잘 하지 않을 뿐 부모님 위하는 마음만큼은 끔찍한 사람인데 아마도 길 가다가 이 장면만 본 사람이 있다면 천하에 몸쓸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일을 마치고 저녁이 되면 낮에 일은 또 까맣게 잊고 허허 거리지만 일할 때는 전쟁터가 따로 없다. 콩 타작 할 때는 힘들어서 내년에는 절대 콩 농사 안 짓는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해마다 또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를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저녁이 되면 또 그 힘듦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

아주 산골도 아니고 시내도 아닌 어중간한 시골 동네에 농사 많이 짓는 부잣집 만며느리 이것이 표면상으로 볼 때 내 모습이다. 주위 사람들의 말대로 라면 억척스럽게 생기지도 않았고 농사짓게 생기지도 않았으며 천생 여자같이 생긴 내가 억척같은 우리 집의 며느리로 살아가는 얘기를 하자면 옛날 어른들 말처럼 소설책으로 몇 권을 써도 부족하겠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글이 소설책이 아니니 그에 맞게 이야기보따리를 한번 펼쳐보려 한다.

우리 집 가족 구성원은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 이렇게 여섯이다. 부모님들 세대에 비하면 그리 대가족도 아니지만 한 가정에 둘 셋만 사는 가족들이 태반인 요즘 현실에서 우리가족은 대가족에 속한다. 지금은 우리 장남이 대학에 진학해 기숙사에 있어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해도 식성이 다 틀린 여섯 식구가 삼시 세끼도 모자라 새참까지 집에서 먹었으니 먹는 얘기만으로도 한 페이지는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결혼과 더불어 시작된 나의 농촌 생활은 어느덧 20년을 넘겼고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쭈시고 아픈 곳이 늘어났으며 얼굴 곳곳에 깊어지는 주름살을 감출 수가 없는데 나는 아직 여전히 이 동네에서는 새댁이다.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농촌에 그만큼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어찌면 난 내 아들이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 할머니가 되어도 새댁이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낭만과 여유를 꿈꾸며 귀농, 귀촌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낭만적이지도 여유롭지도 않아서 그곳에서 버티어 내는 젊은 농업인이 많지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농사에 농



이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나는 땅에도, 돈에도, 일에도 관심이 없으나  
 그들이 나의 가족인저라 열심히 또 밭맞추 살 수밖에 없다.





자도 모르던 내가 20년의 시간을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누구네 집 며느리로 살아남았다는 것에 스스로에게 대견함을 느낀다.

농사지을 땅을 넓히고 좋은 흙을 넣어 좋은 논밭을 가꾸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으신 아버님과 다른 일에는 모두 뜻이 맞지 않지만 논밭을 사는데는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서 열심히 아끼고 아껴 돈을 모으는 일 밖에 모르는 어머니, 그런 두 분의 뜻에 합세하여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 할 일들을 읊어대는 일 밖에 모르는 남편. 이런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나는 땅에도, 돈에도, 일에도 관심이 없으나 그들이 나의 가족인지라 열심히 또 발뺌 살 수밖에 없다. 동네 사람들은 말한다. 이 집은 손발이 적적 맞아서 뭐든지 잘 되니 재미가 나겠다고……. 그렇게 손발을 맞추기 위해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나를 버리고 사는지 그들은 알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내가 트럭을 몰고 농로 길을 다닐 때 공원에서 여유롭게 운동하고 있는 그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때마다 식구들 밥 챙기면서 남편 출근 시켜놓고 친구 만나 밥 사 먹는 여자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남편 월급날 기다리는 아내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으려나?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다. 산과 들에 꽃이 피고 어디선가 날아온 아카시아꽃향기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한다.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들은 저마다 눈부신 초록을 자랑하며 이웃집 담벼락마다 피어난 울긋불긋 꽃들이 고개 내밀어 인사하는 어여쁜 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꽃놀이를 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결혼하면서부터 내가 가장 싫어하게 된 계절이 봄이다.

하지만 지금은 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있는 밤. 고단한 낮이 지나야만 찾아오는 밤. 하루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밤이다. 아무도 날 부르

지 않아서 좋고, 쓸 수 있어서 좋고, 조용해서 좋고, 이렇게 무슨 글이든 끄적  
일 수 있어서 좋고…….

밤이 좋은 이유를 대라면 나는 밤을 새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시간이 지  
나가는 것이 아까워 엄마는 빨리 잠을 잘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 말한다. 며  
느리이고 아내이고 엄마이다 보니 이 집에서 나를 부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  
아 아무도 날 부르지 않는 밤 시간이 어찌 아니 좋겠는가!

결혼 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대농의 집에 살고 있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종걸음을 하며 뛰어다녀야 집안일이며 농사일 뒤치다꺼리를 할  
수가 있다. 논에서든 밭에서든 어디서 누가 부르던지 나는 달려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5분 대기조 같은 사람이다. 시집와 처음에는 논과 밭만 구  
분할 뿐 정말 아는 게 없었는데 우리 식구들 특징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남도 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고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것이다.

책 읽는 걸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새로 산 물건의 설명서들은 꼭 챙겨  
보는 편인데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넓은 논밭에는 사용 설  
명서는 없고 바로바로 알아듣지 못하면 성을 내는 식구들만 있다. 오죽했으  
면 시집온 첫해에는 아버님이 어느 논으로 뭘 갖다 달라시면 무조건 “예” 하  
고 대답해놓고 온 들을 다 찾아 헤매었을까?

내가 트랙터나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것도 이런 가족들 성격 덕분 일 것  
이다. 이 사람이 여자이고 이런 농기계를 운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는 남편은 무작정 기계에 올라타게 하고 시키는 사람이다.  
“이거 당기고 저거 밟고 앞으로 가” 하면 설명 끝이다. 두 번 물으면 큰소리  
내는 사람인지라 난 그냥 용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용감함 덕분  
에 칭찬을 듣기도 하고 멋있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으니 감사하게 생각해보



려 한다.

지난봄 남편이 2박 3일간 먼 곳으로 교육을 가고 있는데 범씨를 받아시키는 커다란 발아기가 고장이 났고 당장 내일 써야 하는 상황이라 그걸 빨리 고치려고 전라도 장흥까지 비 오는 새벽길을 안개로 일 미터 앞도 겨우 보이는 그 길을 3시간이나 달려간 적이 있었다. 그곳 사장님께서 웬 젊은 여자가 트럭을 몰고 기계를 고치러 온 것이 신기하고 대견하다 시며 큰 액수의 수리비도 받지 않으시고 다른 부품들까지 바꿔주신 적이 있다.

나의 용감함에 관한 얘기도 시작하면 한 페이지는 훌쩍 넘길 것 같아 여기서 접어두기로 하고 우리 집 장남 얘기를 잠깐 해보려 한다. 부자지간이건 부부사이건 함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아 싸울 일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일도 힘들지만 이런 가족 간의 관계들이 힘들을 알기에 아들이 어릴 때부터 한 말이 있다. 너는 절대로 농사짓지 말고 멀리 뚝 떨어져서 살라고 당부했는데 어디 세상일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 올해 대학교 2학년인 아들은 한국농수산대에 진학해서 열심히 벼짓 공부를 하고 있다. 농사지면 장가도 못 간다고 했더니 “아빠는 장가가셨잖아요”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앞으로 자신의 농장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배움의 길에 있는 아들을 응원할 뿐이다. 어쩌면 내 며느리도 나중에 그 아들에게 너는 절대로 농사짓지 말라고 할지도 모를 일이지만 사람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일한다면 이 또한 부듯한 일이 아닐까?

아직도 새댁이 소리를 듣고 있긴 하지만 내 나이도 이제 50에 가까워지다 보니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새삼 느끼는 요즘이다. 내 아들 세대의 농업은 이런 먹거리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사명감을 가진 농업인들이 많아져서 농업인도 인정받고 살 수 있는 시대가길 바라본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고 들었다. 하지만 농업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오길 또한 기대해 본다.

낭만적인 농촌 생활을 꿈꾸며 시작한 농업인의 길은 아니었으나 결혼과 더불어 억척같이 일만 하고 땅 만 파는 집 며느리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나도 좋은 흙이 눈에 들어오고 파릇파릇 자란 모판의 모가 꽃보다 예쁘다 감탄하며, 탐스러운 열매가 보석보다 좋아 보이는 어쩔 수 없는 농사꾼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지난봄 모내기를 끝내고 여고 때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었는데 지나는 곳곳마다 풍경은 감탄하지 않고 포슬포슬한 제주의 흙에만 감탄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친구들은 농사꾼 티 좀 그만 내라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20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을 건디어 지금 내가 억척이네 며느리로 이렇게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나를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어 가능 했을 것이다. 비록 논밭 사용 설명서는 없었지만 불같은 성격임에도 며느리에게는 큰소리 한번 안치시는 며느리 바보 아버님이 계시고, 뭐든지 잘한다잘한다 해주시는 어머니가 계시서이며, 툭툭거리기는 해도 아이들에게 네 엄마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며 내 기를 살려주는 남편이 있어서이고, 엄마 말이면 끄벅 죽는 두 아들이 든든히 내 옆을 지켜 주어서이다.

멀리 시집와서 고생하는 딸을 위해 늘 기도하시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



이 있고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시누이가 있고 형수를 최고로 여겨주는 시동생도 있으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형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며 나를 세워주는 동서가 있고 말없이 늘 마음으로 처남댁을 응원해 주시는 시누 남편도 있다.

이 모든 가족들의 응원이 농사에 농자도 모르던 내가 농사 밖에 모르는 우리 집 며느리로 살아남게 하는 비타민이며 보약들이다. 하루 일과에 지친 이 저녁 비록 끄끙 거리며 잠들겠지만 내일 아침 또 가쁘히 일어나게 하는 진한 보약들 덕분에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마무리한다.

내일은 또 어떤 일로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지려나?

“아버님 내일도 육은 제가 다 먹을 게요 아버님은 맛난 것만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 청년·다문화부문 |



### 최우수상

27살, 농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나는 청춘 농부다!  
강보람

### 우수상

내 나이 열아홉, 여성 농업인을 꿈꾸다  
손다원

넌 할 수 있어!  
이수경(다문화)

### 장려상

순창에서 피어난 농부 아가씨  
안훈경

토마토가 빨갱게 익으면  
임주현

시골 언니  
함은미



## 27살, 농업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나는 청춘농부다!



강보람



봄이 지나고 슬쩍 다가온 여름 안에서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무성했던 가지들은 초록하게 나무가 되었고, 행했던 논들은 이제 막심은 모로 가득하다. 밭들은 저마다 각자의 소중한 농산물을 품고있는 계절. 나의 밭들은 고구마를 품느라 여념이 없다. 그 밭속에서 나의 하루는 5시 반에 시작이 된다. 당연한 듯 보이는 이 농촌생활은 처음부터 나에게 맞는 옷은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모님께서서는 그 당시 합성피혁 공장을 운영하셨고 그로인한 부작용?인지 나는 '아토피'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요즘 시대에 하도 흔해 '아토피' 정도가 대수냐고 열에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나는 아토피환자 중



에서도 최상위였다. 전국 방방곳곳 좋다는 병원 다 데려가 보았지만 결국 돌아온 대답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가세요” 였고 때마침 터진 IMF로 인해 부모님의 공장은 위기를 겪게 된다. 결국 부모님은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하시게 된다.

서울에서 처음 귀농한 지역은 바로 ‘전라북도 정읍’ 이었다. 그때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정읍 내장산에서 민박집을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귀농 한 그 곳에서 부모님은 한차례 더 위기를 겪으셨다. ‘우렁이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저수지에 있는 우렁을 잡아 장에 파니 돈이 되길래 열심히 잡아다 수돗가에 보관을 해서 내년 봄에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셨다. 한해 열심히 잡아 저장한 우렁은 그 이듬해 봄이 되어 물을 퍼내고 보니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먹이가 없어 서로 잡아먹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시골로 귀농하여 처음 한 우렁이사업을 실패하고 부모님은 정읍을 떠나 고모가 계신 ‘전라북도 김제’ 로 두 번째 귀농을 하시게 된다. 우리 고모는 김제에서 쌀농사를 짓고 계셨다. 부모님생각에 김제가서 농사지으면 농기계는 빌려 쓸 수 있으니 김제로 귀농을 결심하셨다. 이 때의 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김제로 귀농을 하고 부모님께서 진짜 본격적인 ‘농부’의 길을 걸으셨다. 전라북도 김제는 ‘쌀’이 유명한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쌀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우리 부모님은 쌀 이외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콩 등 다양한 작목을 조금씩 다 재배하시다 주작목을 지역특산품이 아닌 ‘고구마’를 선택하셨다. 처음 1000평으로 시작한 고구마농사는 한해, 한해가 지날수록 농사는 늘어갔고 10만 평으로 늘어난 밭으로 인해 부모님을 집에서 뵙는 건 힘들어졌다.

부모님의 속도 모르는 철부지 삼남매, 우리 이야기다. 나는 삼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고 둘째는 여동생, 셋째는 남동생이다. 처음 '귀농'이 무슨말인지도 모르는 그 어린나이에 서울살다 귀농했던 소리에 주변에서 '시골사니까 심심하지 않니?' 라는 말을 많이들 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아니었다. 생전 처음보는 논들에 모가 심어져있는지도 모르고 수영장인줄 알고 셋이서 눈을 헤집고 다녀서 모값을 물어줘야 했고, 하루는 양봉하는게 신기해서 구경가다 꿀벌에 잔뜩 쏘여 울면서 집에 왔고, 나무며 풀이며 비포장도로를 마음껏 누비고 뛰어다녔다. '귀농'은 심심함이 아닌 우리 삼남매에게는 놀이고 재미였다. 서울에서는 할 수 없었던 마당에서 뛰어노는 일도, 동물을 키우는 일도 가능했던 시골이 마냥 좋았다.

### 하지만 나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오고...

나는 초등학교는 시골에서 전교생이 100여명쯤 되는 초등학교를 나왔다. 1학년때부터 6학년때까지 모두가 같은 반, 같은 친구였다. 그러다 중학교를 시내로 나가게 되었는데 한 학년에 10개반이나 되고 전교생이 1000명쯤 되는 학교로 가니 그 친구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비가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늘 흠이 묻은 신발을 신고 등교했고, 친구들의 부모님은 자가용으로 학교를 데려다 줄 때 나는 트럭을 타고 등교를 했다. 그 시절 감사한지 모르고 왜이렇게 부모님의 직업이 부끄럽던지. 또 친구들은 시골사는 애 처음 본다며 놀려댔고 나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노는 대신 농사를 도와야 했고 방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다. 그렇지만 주말에, 방학에 부모님을 도우면서 나는 차츰 성장해나갔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어서 도시로 학교를 보내주시는데 감사했고, 시골에서의 삶이 나와 잘 맞았는지 나는 차츰 건강해져갔다. 거기다 농사일도 잘되어 우리는 시골의 외판집이 아닌 2층저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마냥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인 줄 알았지만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 한순간의 실수로 빗더미 속으로...

내가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님은 더욱 농사에 욕심을 내셨다. 365일 정말 일개미처럼 여행한번 못가보고 일만하시던 부모님, 늘 흠투성이셨던 부모님께서 2층집을 구매하신 후 농사를 더 열심히 지으셨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보였다. 하지만 한 해 수확한 고구마를 모두 저장하면서 문제는 시작되었고, 그 많은 고구마는 그 해 겨울 폭설로 인해 저장했던 하우스가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빗으로 돌아왔다.

빗더미 속에서 2층집은 팔려나갔고 가지고 있던 자동차며, 창고며 모든게 한순간에 사라졌다. 우리 가정의 화목도 깨져버렸다. 어머니는 매일 우시고 아버지는 매일 술로 나날을 보내시고 나도 정말 힘들었다. 그러던 와중 부모님께서 나에게 국비지원이 되는 '한국농수산대'로 진학하길 권유하셨고 나는 "여자가 무슨 농대야!"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부모님께서 말하길 농업에 희망은 있는데 귀농해서 정보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실패를 한 거 같다며 나에게 전문적으로 농업을 배워서 '농업경영'을 해 보라고 권유하셨다. 나에게 생각? 망설임? 따위는 없었다. 단호하게 농사짓지 않겠다고 그러니 농대도 진학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내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고구마를 무지 좋아

하는 거였다. 그래서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나는 매일같이 고구마를 썰서 간식으로 가지고 갔고, 친구들과 나눠먹다보니 하루 3개 썰가던 고구마가 이튿날은 5개, 그 이튿날은 10개, 그 이튿날은 20개 어느날 보니 어머니께서는 아침에 고구마를 한 솥단지 찌고 계셨다. 책가방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책은 없고 고구마만 가지고 학교로 향했다. 반에 고구마 열풍이 불어 너도 나도 고구마를 썰서 오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말하길 우리집 고구마가 제일 맛있다고 집에가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께서 구매하고 싶다고 한다며 나에게 고구마를 팔라고 권유했다. 그치만 우리 농장은 그 당시 농장이름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택배판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던 브랜드도 없는 그야말로 정말 옛날 농사 판매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기에 나는 친구들의 주문을 뿌리쳤다. 그러던 와중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를 인터넷으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농업'에 대한 마음의 문을 한발짝 열었다. 그리고 그 길로 바로 세무서에 찾아가 사업자등록을 낸다. 당시 나의 나이는 고등학교 3학년 열아홉살 이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 농대에 진학하게 된다.

농업전문학교인 한국농수산대학을 진학만 하면 나는 '농부'가 되는 줄 알았다. 막상 들어간 학교에서 고등학교시절 인문계에서 문과를 전공했던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 모든게 처음이었고 여학생보다 많은 남학생의 비율에 기죽었으며, 부농의 자식들 사이에서 자존감은 하락해져 갔다. 계속 내 길이 맞는지 고민했고 그 결과 나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판단해 자퇴를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부모님의 계속된 설득으로 인해 1년만 더 다녀보자 라는 판단이 지금의 나를 청년여성농부로 만들게 되었다. 1학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2학년 실습생이 되던 해, 나는 국내의 유일한 고구



반에 고구마 열풍이 불어 너도 나도 고구마를  
 써서 오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말하길  
 우리집 고구마가 제일 맛있다고 집에가서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부모님께서 구매하고 싶다고 한다며  
 나에게 고구마를 팔라고 권유했다.



마연연구소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로 10개월간 실습을 자원했다. 그당시 내가 알던 고구마의 종류는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두가지였는데 고구마연구소에서 만난 고구마들은 국내품종은 60여가지, 해외품종은 600여가지나 된다는 말에 나는 매우 충격을 받았다. 고구마집 딸 래미가 이런것도 모르고 말이 되나 싶어서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고구마연구소에서 실습하는 동안 나는 호기심 많은 이제 막 세상에 발딛은 사람 같았다. 모든게 신기했고 새로웠다. 그러던 와중 ‘꿀고구마’를 연구하는걸 보조했는데 먹어보니 맛도 좋고 또 밭에서 바이러스 저항력도 좋아 재배가 쉽다는 말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우리집에 꿀고구마를 처음 재배하게 되었다. 그때당시 우리지역에 최초로 꿀고구마가 그것도 우리집에 도입된 것이다. 그 다음 해 고구마 중 꿀고구마가 열풍이 불면서 우리집은 많은 빚을 탕감하게 되었다. 그걸 지켜본 나는 농업이라는게 1차 생산도 중요하지만 정보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해야되는 농업이 어떤 길인지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 농대 졸업 후 나는 취업이 아닌 밭을 택했다.

하지만 돌아온 시골에 나를 반겨주는 이는 없었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들에 나의 자존감은 낮아졌다. “여자가 무슨 농사야?”, “공부를 못했나보다”, “취업이 안됐나봐” 등등 나에게 대한 말들이 많았다. 친척들조차도 농업을 직업으로 삼겠다는 나의 말에 다들 미쳤다고 대학까지 나온애가 농사냐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다. 그러다 보니 외출은 없어졌고 나는 나를 농장안에 가둬버렸다. 내가 유일하게 의지 할 곳이라곤 부모님뿐이었다. 모두



가 내게 손가락질 할 때, 부모님께서서는 정보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나를 믿어주셨다. 나는 고민했다. '이 시골에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뭘까?' '부모님보다 잘 할 수 있는게 뭘까?' 라고 고민 한 끝에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내가 왜 농부가 되려 했는지 돌아보니 내가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바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해야될 일이었고 나는 1년동안 고민하고 상의 한 끝에 '아빠와 딸이 함께하는 고구마농장' 바로 <강보람고구마>를 만들어낸다. 자본이 필요해 알바도 하고 부모님께서 보태주신 돈을 모아보니 300만원으로 시작했다. 인터넷 고구마쇼핑몰을 오픈했고, 고구마 포장 박스도 기존 20kg와 10kg가 대부분인 기존과 다르게 핵가족을 겨냥해 3kg로 다 바꾸었다.

브랜드를 만들고 쇼핑몰만 오픈하면 그냥 알아서 잘 팔리는 줄 알았다. 현실은 호락호락 하지 않았다. 홍보와 마케팅이 전혀 안되었는데 고구마가 팔릴 리가 없었다. 오픈 한 첫달에 3kg 한박스를 팔았다. 두 번째 달에는 두박스를 판매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했다. 내가 파악한 원인은 바로 '홍보, 마케팅이 안되어 있어서' 였다.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투자 없이 홍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끝 내린 결론은 SNS. 그 중에 블로그 였다. 블로그에 농사 일상을 올렸고 반응이 없자 검색량을 늘리기 위해 맛집, 여행, 농산물 등 다양하게 포스팅을 했다. 사람들이 점점 들어왔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농사짓는거 맞아요?' 라고 내가 생각했던 댓글이 아니었다. 지금처럼 각종 TV, 기사를 통해 청년농부들이 주목받는 시기가 아니였기에 스물네살의 내가 농사짓는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나는 그들을 설득시키려 노력했지만 반응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변명보다는 꾸준히 내이야기를 올렸다. 나의 농사이야기를. 그러자 1년쯤 지나니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다. '농사안짓게 생겼다. 농사짓는거 맞냐?' 이런 댓글이 '보람씨가 기  
 른 농산물 먹어보고 싶어요'로 바뀌면서 나에게도 단골고객들이 생기기 시  
 작했다. 꿈만 같았다. 한달에 한박스를 팔던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가 기른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에 마음이 몽클했다. 또 한번  
 나의 이야기는 기적을 펼쳐냈다. 내가 직접 디자인한 농산물 박스가 도매시  
 장에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다. 그 전에 시큰둥했던 도매시장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강보람고구마 납품해 달라고 기존 디자인과 다르게  
 농산물이 아닌 나와 아버의 캐리커처를 넣어 디자인하고 이름을 넣은 브랜  
 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줬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기억에 오래 남겼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특별한 경험이 찾아왔다. 바로 방송국에서 연락이 온 것  
 이다. 거절하다, 거절하다 나간 방송에서 나와 부모님이 함께 기른 고구마  
 의 사연은 많은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주문전화가 폭주를 했지만 당시 아무  
 것도 몰랐던 우리가족은 촬영하기 전날 막 수확한 고구마를 대기업에게 판  
 매를 하고 고구마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에서 방송에 나가 제대로  
 팔아보진 못했다. 6천건정도의 주문이 왔는데 "다음 수확까지 2주정도를 기  
 다려주세요야 합니다." 라는 내 말에 기다려 주신 분은 열분정도 였다. 판매는  
 실패했지만 방송으로 달라진 점이 생겼다. 그 전에 여자가 농사짓는다고 구  
 박하던 친척들, 그리고 동네사람들 모두가 바뀌었다. 취업하기 전까지만 농  
 사짓는 거겠지 생각하시던 분들도 계셨지만 방송을 보시고 내가 하려는 농  
 업을 응원해 주시기로 했다. 직업이 뭐냐고 묻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농  
 부'라고 한번도 말하지 못했던 내가 내 직업인 '농업'을 인정하고 나니 비로  
 소 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농부'라고 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 나에  
 게는 각종 티비출연이 쏟아졌고 나가는 방송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나는 '스타농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스타농부'가 되니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주시고 내 고구마를 인정해주시는 거 같아 마냥 좋았다. 그냥 즐거웠다. 2016년 3년차농부가 되었을 때에 나는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경매 최고가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우수한 고구마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행복하기만 한 시간들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고구마 생산이 부실했던 것있다. 내가 생각하는 맛, 모양이 있는데 그걸 따라오지 못했다. 내 고구마를 기다리는 고객들이 많았지만 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고구마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모두가 의아했다. 알아서 잘 팔리는 고구마를 팔지 않겠다니. 나는 내 소견을 지켰다. 부모님도 설득했다. 앞으로 우리 브랜드가 성장하려면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좋은 고구마, 맛있는 고구마만 판매하자고 그 길로 고구마를 전량 가공공장으로 헐값에 보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고구마를 생산하기로 다짐했다.

가치있는 브랜드를 만들려는 내 고집을 하늘도 알아줬는지 이듬해에는 농사가 잘 되고 판매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농산물 크라우드펀딩에서 1등을 차지했고, 홍콩대형마트에서도 연락이 왔다. 고구마를 납품해 달라고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1차농산물 해외수출이라니! 2017년은 온전히 고구마 수출에 전념했다. 새로운 판로를 확장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하지만 원물인 고구마 수출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났고 나는 또한 번 좌절했다. 해외에서 부패가 되면 폐기비용까지 물어야되서 손해가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양한 시도를 했다. 온도를 바꿔보기도 했고 포장지를 바꿔보기도 했고 나아지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던 와중 홍콩에서 초대를 받고 현지에 다녀왔는데 내 고구마가, 한국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고구마

가 현지에서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부패만 되지 않는다면 일주일도 안되어서 완판되었고, 내가 방문했을때도 많은 사람이 고구마를 사갔다. 현지 회장님께서 전세계의 고구마 중 내가 기른 한국고구마가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 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와서 고구마 수출의 부패를 막기위한 대응을 찾기 시작했다. 각종 기관에 문의하던 중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전라북도청과 농촌진흥청장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셨다. 농촌진흥청에서 대답해주시길, 아직 고구마해외수출은 어렵다고 많은 지역에서 하다 포기했다고 저는 그래도 해야겠다고 꼭 성공시켜야겠다고 얘기했더니 올해엔 같이 부패를 줄이는 방향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바로 청년농부가 해야 할 숙제 같아서다. 내가 부패문제를 잡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다면 뒤 따라올 후배 농부들에게도 먼저간 선배로서 또 다른 길을 개척해 줄 수 있으니까,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한다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5년차, 스톨일곱의 청년농부는 한해 한해 성장통을 겪으며 진정한 농부가 되려 하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꿈 많던 청춘의 나는 지금 농업안에서 모든 꿈을 다 이뤘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청춘은 세상에 농업을 알리려 강단에 서고, 연예인이 되고 싶던 청춘은 각종 TV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 꿈을 이루고, 작가가 되고 싶던 청춘은 지지난해 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그 꿈을 이루고, 리포터가 되고 싶던 청춘은 농업크리에이터로 1인 농업방송을 시작하면서 그 꿈을 이뤘다. 이렇듯 농업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막노동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농업은 정말 만능엔터테이너다. 농업경영, 농업마케팅, 농업회계, 농업디자인, 농업작가, 농업강사, 농업크리에이터 등 농업은 많은 것을 포용하고 많은 것을 잘해야 한다. 지금 스톨일곱



의 나는 박사농부다. 좀 더 멋진 농부가 되기위해 매주 서울로 대학원을 다녀 창업학석사를 득했고, 올해는 박사과정에 합격하여 매주 무역학을 공부하고 있다. 농사지을 시간도 바쁘는데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농부는 공부를 못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주고 싶기도 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다.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농업에 접목시키려는가를 나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된다.

### 마을의 가장 어린 사장님, 바로 나다.

처음 농장의 대표라고 날 소개했을 때, 일하러 오신 이모님들은 코웃음을 치셨다. 대표라고 말했지만 호칭은 “야” 또는 “보람” “학생” 이었다. 손주뻘 되는 애가 사장이라니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을거 같다. 내 어린 초등학교시절 부터 봐왔던 분들인데 머리 좀 컸다고 사장 행세라니! 내가 생각해도 웃기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모님들이 날 부르는 호칭은 바뀌었다. 바로 “사장님” 인정받는 다는 건 마냥 좋기도 하지만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함께 하는 것이다. 농장의 대표로 인정받는 순간 내 어깨는 무거워졌다. 올해 고구마순을 심는 신제품 농기계를 구입했다. 고구마 심는 철이 끝나가는 5월말인 지금까지 그 기계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먼지만 쌓여간다. 농기계를 사고 보니 이 기계를 사용하면 30명의 인력을 5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는 좋겠지만 우리 인부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 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게 해드리는게 목표였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게 목표는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올해는 특별하게 모든 이모님들에게

감사장을 나눠드렸다.

농업은 돈을 좇으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안다. 나는 지극히 가난을 겪어봤고 교복 살 돈이 없어서 울어봤다.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그게 바로 농부의 사명이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앞으로 어떤 농업을 하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에 나는 우리 농부들 그리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한다.

마지막으로 이름처럼 보람찬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나는 오늘도 나는 50명의 인부들과 함께 7만평의 고구마밭으로 출근한다.



## 내 나이 열아홉, 여성 농업인을 꿈꾸다



손다원

“선생님, 전 대학을 가지 않기로 결정 했어요.”

“대학 가지 않겠다고? 어떤 일을 할 계획이 있는거니? 요즘에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데...나중에 엄청 후회할지도 몰라.”

“괜찮아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저 시골에서 유기농 계란 농장하려고요.”

11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좁고 어두운 상담실에서 유기농 계란 농장을 하려 한다는 나의 대답에 두 눈이 동글해진 담임 선생님의 놀란 표정.

이내 매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떠한지 물으셨고 꽤 진지하게 들어주시며 응원한다고 해주셨다.

고3 2학기. 담임 선생님은 매일 한명씩 돌아가며 진학 상담하시느라 매우 바쁘셨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느 대학 어떤 학과를 선택할지 선생님과 상담할 때, 농업인이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으니 참 신선하셨을 것 같다. 아이 템마저도 생소한 유기농 계란.

11년 전의 기억을 조금씩 더듬으며 주위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 한명도 없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꼬꼬 농장을 만들고 운영하며 생겼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적어 내려가고자 한다.

시간을 거슬러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기 며칠 전, 매일을 부모님과 진지하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누구나 그러하듯 삶의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진로만 생각하면 가슴이 멍멍해졌다.

아마 나의 열정은 끊어 넘치는데, 이 일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장래 희망이 없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던 어느날 저녁, 우연히 한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젊은 딸이 자연 농업 방식으로 닭을 키우며 유정란을 파는 방송을 보게 되었다. '젊은 친구가 대단하네' 라고 생각이 그쳤던 나와는 달리 추진력 강한 아버지께서 갑자기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셨다.

당시에는 조금 낯선 '친환경 유정란'이었지만 판로만 안정적이라면 많은 투자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율을 내기 괜찮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것 같다며 너도 해보지 않을래? 라고 물으셨다.

당연 나의 반응은 '웬 농사?!' 친구들 다 대학가는데 시골에서 닭 농장이라니... 고민도 하지 않고 싫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냥 농업인이라는 타이틀이 싫어 너무 성급하게 싫다고 대답한



건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다시 곰곰히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책상에 앉아 A4용지에 이 일의 장점과 단점을 적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건 바로 쉼이 있는 삶이다.

10대인 내 눈에 그려진 회사원들은 야근과 스트레스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느껴졌다.

나 역시 대학을 나와도 직장 생활은 해야 하는데, 매일을 업무에 시달리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받는 회사 생활은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겠거니와 자연과 더불어 꼬꼬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게 더 적성에 맞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에서 여성 농업인의 삶을 꿈꾼다고 말씀드리게 된 것이다.

결국 아무 연고 없는, 경북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라는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에 퇴직한 부모님이 전원 생활을 꿈꾸며 지내시려고 점찍어 두신 땅에 계획에도 없던 닭 농장도 함께 짓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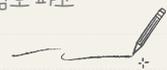
당시 한국에는 자연 농업 농장이 많지 않아 앞서 발전한 일본의 계사 설계도를 보며 따라 지었는데, 공사를 한 겨울에 진행하다보니 작업이 정말 쉽지 않았다.

꽃다운 19살, 학생으로 맞이하는 마지막 겨울 방학에 나는 추위로 인해 귀 윗부분이 동상까지 걸렸었다.

제일 힘들었던 작업은 겁 많던 내가 높고 경사진 계사 천장에 올라가 못들이 녹슬지 않게 하나하나 실리콘 칠을 했던 것인데, 얼마나 무섭던지 다리가 덜덜 떨리면서 기어다니다시피 움직이며 작업하다 결국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종이에 병이리 모양의 로고를 그린 뒤,  
 사진을 찍어 서툰 포토샵 기술로 색감을 입히니  
 완성되었다. 뭔가 새련된 맛은 없지만 투박함이  
 컨셉이라 생각하고 보니 꽤나 맘에 들어  
 그걸로 전단지도 만들고 명함도 파고  
 계란곽에도 새겨넣었다.





뭐가 그리 춥고 서글프던지.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계사는 완공 되었고, 설게도 책을 따라 모이통과 산란장도 여러개 만들어 두고나니 든든했다.

재미난 한가지 에피소드는 당시 계사를 짓는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동네 이장님과 주민분들이 함께 오셔서 반대를 하셨는데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흔히 생각하는 계사는 멀리서도 아주 역한 냄새가 진동하니까.

비록 닭을 키우지만 자연 농업 방식으로 토양에 미생물을 공급하기에 계분이 자연 발효되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다 짓고 나서 행여나 냄새 때문에 곤란하시다면 농장을 철수하겠다고 아버지께서 잘 설득하고 안심시켜 드린 뒤에야 돌아가셨다.

아니나다를까 농장이 완공 되고 병아리들이 중병아리를 거쳐 닭의 모습을 갖출 때 찜 확인하러 오셨지만,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으니 신기하다며 다시 발길을 돌리셨다.

이제 농장이 모습을 갖췄으니 농장 이름과 로고도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이 없었고, 한편으로 전문가에 맡기기엔 금액이 너무 비싸게 느껴져 아빠와 직접 만들기로 했다.

종이에 병아리 모양의 로고를 그린 뒤, 사진을 찍어 서툰 포토샵 기술로 색감을 입히니 완성되었다. 뭔가 세련된 맛은 없지만 투박함이 컨셉이라 생각하고 보니 꽤나 맘에 들어 그걸로 전단지도 만들고 명함도 파고 계란곽에도 새겨넣었다.

농장 이름은 뭘로 할까? 내 이름이 손다원이니 이름을 넣어 만들까? 이름을 넣자니 왠지 쑥스러워 생각해낸 “아침에게란”.

아침에 낳은 계란, 아침에 먹는 계란, 아침에 배달해주는 계란 등 여러가

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이름이 속 맘에 들어 결정!

모든 준비는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이제 유정란만 나오면 된다.

병아리는 태어나 5개월정도 지나면 알을 낳기 시작하는데 처음 낳은 계란이라고 해서 '초산란' 이라고 부른다.

책대로라면 알이 슬슬 나올 때가 되었기에 매일 산란장을 들여다보는게 일이었다. 아침밥을 먹고 어느날과 같이 닭장에 들어가 왕겨로 가득찬 폭신한 산란장을 뒤적거리던 그때, 뭔가 딱딱한게 손에 쥐어졌다. 메추리 알 보다 조금 더 컸던 초산란.

깜짝 놀라 알을 들고 후다닥 집으로 뛰어 들어가 외쳤다.

“드디어 알이 나왔어요!!!”

지금은 일상이 된 일이지만 그때는 뭐든게 처음이라 얼마나 신기하고 기뻐했는지. 그 조그만 초산란 한알을 시작으로 하루가 다르게 알들이 커지고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큰 고민거리가 있으니 수확물은 부지런함과 노력으로 일구어 내면 되는데, 판로가 없으면 수입을 벌 수 없다.

특히 계란은 신선도가 생명이기에 쏟아지는 알을 감당할 판로가 많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고객과의 직거래. 한가지 방법은 택배로 포장해서 다음날 받을 수 있도록 배송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영덕과 제일 가까운 포항시로 가서 집집마다 배달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지내는 지인들에게 인사도 할 겸 판촉도 할 겸 알이 나오는 족족 포장해서 전단지와 함께 선물용 택배를 보내드렸다. 그래도 쏟아지는 알들은 잔뜩 챙겨 포항에 가지고 갔다.



포항 지리도 잘 몰랐기에 이름만 들으면 비쌀 것 같은 아파트가 보이길래 찾아들어갔다.

차안에서 2알이 들어가는 계란곽에 하나씩 포장한 뒤, 전단지를 두둑히 챙겨 가지고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다.

막상 꼭대기 층에는 도착했는데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리던지...

호흡을 가다듬고 집에서 수없이 연습했던 멘트를 머리속에 한번 더 떠올린 뒤 벨을 눌렀다.

‘핑도옹~ 핑도옹~’

순간 머리가 새하얘지고 겁이나 집주인이 만나왔으면 싶었다.

다행히 집주인은 부재. 아래층으로 한층씩 내려가며 몇 집 더 두드리다 처음 만난 집주인에겐 황설수설 했던 기억.

그렇게 한 집 한 집 판촉분으로 챙겨갔던 유정란을 다 소진 할 때까지 열심히 문을 두드렸다.

병아리 키우고 닭들 밥주는 일은 재미도 있었는데, 판촉하는 일은 참 많은 용기와 필요하며 영업을하는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돈 버는게 참 어려운 일이란걸 20살 사회 초년생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렇게 난 밤이 어둑어둑 해질때까지 몇 달을 집집마다 두드리며 판촉을 했는데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중학생때 몸무게로 돌아갔었다.

딱 한번 판촉을 하며 엉엉 운 슬픈 기억이 있다.

밤 8시쯤, 잔뜩 포장해둔 판촉분을 소진해야 하기에 저녁도 먹지 않은채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파트 복도 사이로 풍기는 된장찌개 냄새.

집 안에서 들리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서글픈 마음이 들기 전 얼른 일을 끝내자 다짐하며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 어르신이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끝나기 전 어르신이 갑자기 누구 허락받고 들어왔냐며 경비실에 신고하겠다고 노발대발 하셨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죄송하다는 말조차 못한채 얼어 있었는데.

마침 할머니께서 서둘러 나오시며 우리 영감이 화가 많다고 미안하다고 하시며 문을 닫으셨다.

한참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 터덜터덜 계단으로 발길을 옮겼다. 얼른 돌리고 일을 마쳐야 하는데 모든 의욕이 사라져 그냥 계단에 쭈그리고 앉았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달빛이 창문사이로 비치는데 갑자기 눈물샘이 고장난 듯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 전 일이지만 그때 일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걸 보니 아직까지 그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나보다.

그래도 뿌린만큼 거둔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판촉은 계속 되었고 6개월 정도 적자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3개월만에 흑자로 들어섰다.

택배 회원과 포항 회원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웰빙과 유기농 바람이 거세지면서 저렴한지 않아도 건강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자연 농업식으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농장이기에 큰 수익을 얻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바랬던 여유가 있는 삶을 사는건 분명하다.

살아 있는 생물이라 매일 밥을 줘야하고 들여다봐야 하는건 맞지만 일이 많은건 아니기에 참 여유롭고 한적하다.



현재 서울 토박이 남편을 만나 함께 신혼생활을 즐기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생을 서울에서 지냈던 남편이 우려와는 달리 귀농생활을 매우 만족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쳐있던 그가 동물과 교감하며 부지런히 사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 더 멋진 농업인의 삶을 살고 있는 듯 하다.

누군가 농업인의 삶을 살아볼만하냐고 묻는다면 난 무조건 강력 추천한다.

## 넌 할 수 있어!



이수경  
(판티람퐁)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판티람퐁인데 한국에 온 후 새로 얻은 이름은 이수경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도 아주 깊숙한 시골 마을에 있는 가난한 집에서 8남매 중에 여덟 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저는 또래의 아이들이 모두 그렇듯이 꿈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너무나 컸고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꿈이나마 실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때가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2004년이었지요. 새로운 삶을 꿈꾸던 나는 고향마을과 부모 형제를 뒤로 한 채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 도착한 12월의 한국의 날씨는 무척 추웠고 남편 집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이 고향을 떠날 때 내가 생각 했던 것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특히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처음 먹어 본 한국음식의 고약한 냄새였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식사만은 해야 하는 것 이니까요.

밤이 되면 너무 외롭고 베트남의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곳이라고 해서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저 지난날의 생활이 그립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아침이면 얼굴이 퉁퉁 부었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 눈도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에 온 것이 후회스럽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도 입에 맞고 두려웠던 한국말도 조금씩 알게 되더군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오신 방문지도사 선생님은 한국어도 가르쳐 주시고 한국 문화도 알려 주셨습니다.

선생님과의 한국어 공부가 끝나면 동화책을 읽고 예습과 복습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잘한다는 선생님의 칭찬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한국어로 대화 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면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행인 것은 한글이 정말 좋은 문자라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어려웠지만, 한글 자체를 아는 것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어떤 글자든지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글을 읽을 수 있으니, 모르는 뜻은 몇 번이고 보면서 생각을 하면 깨닫게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나이가 24살이나 더 많았습니다. 더구나 전처의 아들이 2명이나 있고 큰 아들은 저보다 1살 작은 아들은 나보다 4살이 어릴 뿐입니다. 어머니라기보다 누나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

릴 듯했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도 많았지요. 그러나 두 아들은 나를 새엄마라고 불러 주며 잘 따라 주었습니다. 착한 아이들이 내게 또 다른 힘을 준 것이지요.

모든 환경이 익숙해지면서 나는 밭에 나가서 남편을 도와서 농사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배우는 학생처럼 하나하나 따라 했습니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일도 익숙해지고 혼자서도 일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배추 고추 감자 브로콜리 벼를 심었습니다. 작은 모종을 밭에 심은 뒤에 며칠이 지나면 파랗게 올라온 채소 들이 신기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 맑게 갠 날의 채소는 눈이 부시게 푸르렀습니다. 그럴 때는 마치 나의 밝은 미래를 보는 듯 힘이 났고요.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서 배추장사 아저씨들에게 돈을 많이 받고 팔면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거나 다른 곳에서도 너무 많이 심어서 팔지 못했을 때는 거두지도 못하고 밭에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픈 마음을 남편과 나누며 부부의 사랑을 느끼기도 했고요.

다 자란 브로콜리 꽃을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작업장에 가져와서는 예쁘게 일렬로 상자에 담아서 농협에 출하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박스에 크기별로 담아 놓은 브로콜리는 어찌나 예쁘던지요? 사진에 담아서 베트남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나의 행복을 보는 듯하다면서 반가워하었고요.

고추를 따서 크기별로 나누다보면 점심을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가락동시장에 출하한 우리 고추가 최고값을 받는 날이면 너무도 좋았고요. 그때는 금방이라도 큰 부자가 될 듯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내게 서울에 사시는 남편의 누나(시누이) 형님은 가끔 전화를 하셔서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친정에 오시는 날이면 예쁜 옷도 사다주시고 용돈도 주셨고요. 마치 친정 언니의 도움을 받는 듯한 마음이었지요.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오실때면 공항에 오셔서 3시간 남짓한 우리 집까지 아버지를 모셔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 고마움에 대해 나는 가을엔 김장을 담아서 보답했습니다.

지역농협 농가 주부모임에 회원이 되면서 활동도 했습니다. 반찬과 김장을 담가 독거노인 분들께 나누어 드리면서, 그 어렵다는 된장 고추장을 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된장 고추장을 담가 장독대를 나란히 놓던 날에는 혹시 나는 전생에 한국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나를 보시면 우리 어머니가 폭풍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면요. 아, 하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있겠지요. 그리고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필리핀에서 시집 온 승보 엄마처럼 잘 모셨을것 같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 나란히 선 장독을 볼 때면 내 모습이 스스로도 대견해 보입니다. 가끔씩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이면 고향 친구들과 이웃사촌끼리 모여 월남쌈, 쌀국수, 짜조를 만들어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고향 음식을 먹어 본 이웃 분들은 내게 담백하다 깔끔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십니다. 나는 그럴 때 마다 내 고향에 대한 자부심도 커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에 가면 한국과 이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마음껏 자랑해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내게 부끄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오신 한국어 선생님께서 베트남 국화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하지 못했습



이제는 웬만한 일은 나 혼자서도 척척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고  
 남편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니다. 지금 생각 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만 가도 다 아는 나라 꽃을 성인인 내가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생님께서는 한국어 공부도 중요하지만 내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베트남에 관한 공부도 게을리 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농사를 배운지 13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웬만한 일은 나 혼자서도 척척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밭에 맞는 작목을 선택하고 남편에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많습니다. 힘든 농사일로 인해 남편은 고관절 디스크 수술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아픈 남편을 대신해 남편보다 더 열심히 일 했습니다. 일하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지만 아픈 남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차라리 어떤때는 제가 아팠으면 할때도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농사일을 40년 하신 이웃사촌 할아버지는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정이 엄마, 농사는 하늘과 동업을 해야 해요.”

처음에 나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연작과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이 망가진 뒤에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적자를 봤습니다. 남편은 힘들어하면서 내게도 왕 짜증을 부렸습니다. 이런 남편을 보면서 나는 하우스 뒤곁에서 펄펄 울었습니다. 그때는 내 고향 마을과 부모 형제가 그리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엄마 아빠가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다시는 울지 않으리라 결심도 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저녁때가 되면 외양간으로 가 소들에게 사료를 주고 혼자 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애 들어 맛있니?”

그러면 소들도 내 마음을 아는지 이렇게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전국최고의 명품한우 우리가 있잖아요?”

나를 위로하는 듯한 소들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했고요.

언젠가 친절하신 수양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걸어야 할 길이 백리라면 그중에 80십리를 걸어온 나입니다. 무슨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저녁이면 학교 이야기를 재잘 거리는 딸과 배 아파 낳지도 않았는데도 효성스럽게 엄마 일 조금씩 하라고 격려하는 두 아들 거기에 34살에 얻은 며느리, 손녀, 손자 감사하고 또 감사 합니다. 이 모두 나의 행복입니다.

나는 내가 한국에서 받은 이 모든 감사함을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내가 체험한 삶과 농사의 경험을 나와 처지가 비슷한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농가주부모임 회원으로서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께 살가운 손녀딸로 다가가면서 가족과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남편은 눈에 나가 모내기를 하기 위해 로터리 작업을 하고 나는 밭에 나가 청양고추 일반 홍초를 심어야 합니다. 작년에 17만원 10만원씩 간고추값이 또 올해는 얼마나 하려는지요.

“가격도 좋고 잘 자라 수확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면서도 괜히 걱정이 앞섭니다. 잘 될 거라고 잘 자라 달라고 위로를 하지만 마음한구석에 작년처럼 연작 피해가 오면 어찌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괜한 걱정이길 바랄 뿐입니다.

고단하고 힘든 하루지만 오늘도 한국어 공부를 빼놓지 않습니다. 관용구를 배우고 일기를 써 보고 동화책도 열심히 읽습니다.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넌 할 수 있어!

땀방울이 언젠간 내 꿈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배추 모종처럼 내 꿈도 천천히 하루하루 커 갈 것입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을 타고 메시지가 옵니다.

“수경아 넌 할 수 있어 지금도 잘 하고 있잖아.”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잘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물론, 나를 키워준 고향과 그곳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 순창에서 피어난 농부 아가씨



안훈경

### #0 농사짓기 좋은 땅

처음 내 땅 냄새를 맡는 순간에도 달려드는 벌레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무릎까지 오는 풀들에 일단 한숨부터 나왔다. 이곳저곳에 난 가시덩쿨에 얽힌 옷은 뚫릴까 무서워 겨울처럼 두껍게 끼입었다. 그 덕에 온몸의 땀샘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농부들은 자기 땅만 보면 행복하다던데 그것도 내가 속은 건지 의심하면서 내 뺐었다.

“농사짓기 참 좋네”



## #1 갑작스러운 만남.

지금은 농사를 짓고 잘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이쪽 방면에 열정이 있거나, 계획이 있지 않았다. 딱히 꿈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그런 학생 중 하나였다. 농부라는 꿈은 어쩌면 내게는 충동, 좋게 말하면 소나기 같은 일이었다.

“우리도 귀농할까?”

어느 날 부모님이 서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퇴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 또래에서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부모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시골에 땅을 사더니 어느새 집을 지을 계획까지 가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TV에서는 성공한 귀농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지만 막상 우리 집에서 한다니까 덜컥 겁이 났다. 집에서 돈을 버는 수단도 없어져서 괜스레 내가 의기소침해진 적도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집 농사짓는다.”

친구들에게 농사 짓는다고 얘기했을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정도였다. 약간의 침묵 후 “요즘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농부야”랄지, “그럼 나중에 남 동생이 농사짓겠다.”처럼 어떤 반응이든 썩 좋은 느낌은 아니다. 둘 다 고등 학생이었던 동생과 나는 서로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인지 토론을 했었다. 동생이 몸 쓰는 일을 싫어하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여자가 무슨 농사를 짓냐며 얘기해준 덕분에 오기가 솟았다.

‘농부라는 꿈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마 전국에 있는 여고생 중에 처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름의 재

미가 있었다. 그리고 농부를 할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다. 비교육적이고 육체적 일이라는, 또 비이성적인 노동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주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농수산 대학교에 입학했다.

## #2 유료임대

대학과 실습을 마쳐가는 동안 우리집 농사는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신 아버지는 지식이 좀 있었던 양봉과 오디 등을 수확해서 팔기도 했다.

“이건 얼마나 지어요?”, “이건 얼마나 벌어요?”, “이것도 해보면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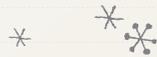
처음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우리 집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럴 때마다 “그냥 적당히?” 라고 부모님은 대답했다. 아마 무엇을 적어 놓지도 않으셨고, 내키는 대로 하는 농사방식이라서 대답을 안 해주셨던 것 같다.

점점 내가 농사에 대해 알았을 때는 질문보다는 트집이 많아졌던 것 같다. 좀 이른 시기에 심는 것 같은데... 비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모종으로 심는 것이 더 좋은데... 내가 배웠던 것과는 다른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했다. 내가 농업을 배운 뒤로는 전보다 많이 들어 주셨지만, “실전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사소한 부분에서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럼 내가 혼자 배우는 지식을 실전에 적용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 쓰는 땅을 빌려주세요.”



비교육적이고 육체적 일이라는, 또 비이성적인 노동이라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주고 싶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한국농수산 대학교에 입학했다.



### #3 젊은 여성 농업인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

부모님이 빌려준 땅은, 수확해서 돈 벌면 10%의 소작용을 내기로 하면서 2000평정도 빌렸다. 아직은 농사만 전념하기에는 확신이 없으니 조금만 먼저 지어보기로 한 것이다.

이 땅은 집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우리 산의 끝자락에 걸쳐 꽤 경사가 있는 땅이었다. 뭘 지어도 잘 될 것 같이 생동감 있는 땅이었지만, 무엇보다 맘에 드는 이유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였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짓는 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다.

‘뭘 할 하는지가 중요한데’

처음 시작하는 작물은 앞으로 내 농사에 주종이 되어서 나를 뒷받침해주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하는 것이 좋아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했다.

‘산에서도 잘 자라야 되고, 서늘한 곳에서... 집과 거리가 있으니 물도 따로 주기 어렵고, 농약도 하기 힘들다.’

하나씩 지워나가면 선택의 폭이 금세 좁아졌다.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뒤로는 확고하게 계획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을 일지노트에 적었다. 가장 급하게 해야 될 것은 빌붙기였다. 내일 우리 집에 포크레인을 끌고 이장님이 오셔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지나가면서 한번만 굶어달라고 부탁드렸다. 300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또 금세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뀌었다. 농사를 하기로 결심한 게 2012년이었으니, 5년만에 처음으로 홀로서기 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두릅이었다.



## # 4 좋은 첫 경험

두릅. 요즘 농촌에서 이거 짓는다고 하면 너무 평범하지 않나 싶지만 많이 짓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수확도 빠르고 나무도 약하지 않아서 어디든 곧잘 자란다. 밭에서든 산에서든 두릅은 상품가치가 훌륭하게 나와 줘서 좋은 작물이다. 처음에 묘목을 30주 정도 사와서 거리를 잰다. 두릅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투자비용이 많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정도 떨어트리면 되니까 2천주 정도 심으면 되겠다.’

대학생이 된 동생이 궁금해서 도와주러 왔기에, 같이 줄을 맞춰서 심어 볼려고 했지만 막상 산이기 때문에 줄을 잡는 것보다는 경사에 맞춰 심어서 쉽게 심을 수 있었다.

그 뒤로는 탄탄대로였다. 유박을 5개 사서 적당히 뿌려 주었고, 시간도 빨리 지나 한번씩 옆에 있는 잡초를 제초해주었다. 그 뒤로는 탄탄대로였다. 유박을 5개 사서 적당히 뿌려 주었고, 시간이 지나 주변에 풀이 자라면 한번씩 옆에 있는 잡초를 제초해주었다. 처음에는 언제 키우지 했던 식물들은 걱정보다 잘 자라주었고, 막막하기만 해보였었지만 성취감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동안 두릅은 손의 반절만한 크기로 자라났다. 튼실하고 먹기 좋게 포장하는 기쁨이 있었고 ‘내가 한 2000평 했으면 어땠을 까’ 아쉬움마저 들었다. 협동조합에 얼마나 팔았는지는 비밀이다. 내 두릅에 대해 모독이니까.

## # 5 농업, 그 후의 삶

한 번 농사를 짓고 멈추는 농부는 없을 거다. 이번 농사로 나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하는 성격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게 부모님께 먹혔던 것 같다. 처음에 혼자 하겠다고 고집부린 것을 사과 드리면서, 이론과 실전이 다른 점이 있음을 인정한 후 이번에는 같이 시작하기로 했다. 전체적인 의견은 서로 검토하면서 부모님은 회장, 나는 사장이 되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좋은 땅들을 골라 부지는 3000평으로, 묘목은 2만개로 딱 10배를 늘렸다. 과거에는 생산품을 제출할 때 너무 조금 내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제 너무 일이 너무 많아서 들기에 힘이 부치다. 그 뿐만이 아니다. 두릅은 거의 한철에만 일해도 되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것도 기획하기 시작했다.

나는 농사를 구성하고 계산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님이 가진 장점이 많았다. 부모님이 과거 꽤 오랫동안 학원을 하신 적이 있기에 그 덕에 체험농장도 실시했다. 학교에서 꼬마 친구들이 와서 농사를 체험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다.

## # 6 앞으로

농사를 지을 때는,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기억도 안 할 만큼 바빴다. 여성 농업인으로써 수기를 작성하기 시작했을 때야 생각났다. 더 이상 사람들은 나한테 위로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부러워하고 재밌어하고, 놀러 와도 되냐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농사로 떼돈을 벌고 싶은 욕심은 없어졌다.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작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기록할 생각이다.



농사를 하면서 얻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도 하고 싶다. 원래 나는 들이 닦친 일만 하는 편이었다. 시험이 코앞이어야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제출해야 될 것도 있으면 기간이 끝나갈 때쯤 급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농사를 시작하고 나서 배운 점이 많다. 농사라는 게 누가 평소에 체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하루 내가 놓고 먹으면 그게 고스라니 내 상품에 나타났다. 농사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산을 등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 정상에 도착하는 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나아가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당당한 한명의 여성농업인'으로써 알려주고 싶다.

## 토마토가 빨강게 익으면



임주현



빨강게 익은 토마토만 따야하는데 덜 익은 토마토를 따 섞어 넣는 바람에 오늘은 지적을 많이 받았다. 내 눈에는 전부 빨간 토마토로 보이는 바람에 그 안에서 새빨강게 익은 토마토와 불그스름한 토마토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탓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토마토를 따는 할머니들은 거침없이 새빨간 토마토만 골라 컨테이너에 담아 넣는다. 단순히 토마토를 따는 것이 뭐 어렵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이 새빨간 것인지 불그스름하게 덜 익은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토마토 꼭지가 떨어지지 않게 따야 하는데다 따면서 줄기가 다치지 않게 해야 하는 등 하다보면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빼고는 다들 손이 눈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척척 따고 있으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새벽 여



섯 시부터 오후 다섯 시까지 열 시간 가까이 다리 사이에 방석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 토마토를 땀는데 내가 딴 토마토는 고작 여섯 컨테이너 정도다. 일이 능숙한 할머니들은 열한 컨테이너 가까이 땀으니 거의 두 배 정도가 차이 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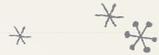
무릎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내 앞에 놓인 고작 여섯 컨테이너의 방울토마토가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도 요즘에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내 땀에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일이 끝나고 나면 속이 발갱게 달아오르고는 했었다. 일이 끝나고 일당을 받아야 하는데 선뜻 손이 내밀어지질 않는다. 농사일에 능숙한 분들과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게 부끄럽게 여겨져 이 순간이 되면 매번 숨이 턱 막힌다. 불그스름한 토마토는 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땀다면 하루나 이틀 정도 후숙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또 일일이 골라내야 한다. 일을 두 번 해야 하는 것이다. 불그스름한 토마토가 섞여 들어가면 질이 낮게 평가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도 이 농가의 토마토를 사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어쩔 수가 없다. 언제쯤 나도 할머니들처럼 능숙하게 새빨갱 토마토와 불그스름한 토마토를 능숙하게 구별해내게 될까. 삼촌이 처음엔 다 그런 것이라며, 내 손에 오늘 일당을 꼭 쥐어준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산다는 게 원래 다 그렇게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배우면서 묵묵히 하면 된다고 한다. 이런 일로 기가 죽지 않으려고 이를 악 물었다가 제 풀에 지쳐 입에 준 힘을 푼다. 예전에는 버티려고 기를 썼지만, 요즘에는 기가 죽으면 죽는 대로 고개를 푹 숙인다. 그게 이곳 농촌에서 배운 삶의 방식이다.

나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했다. 엄마가 살라는 대로는 절대 살지 않

겠다고 씩씩거렸다. 나는 엄마보다 더 많은 세상을 볼 거고, 그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해내고 말 거라고 큰소리를 땡땡 쳤다. 그런데 어찌다보니 지금의 나는 집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이 작은 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지내고 있다. 밭일을 하고 있으면 엄마 생각이 자꾸 난다. 사는 게 영 내 마음 같지가 않고 생각하면 유난히 엄마가 더 보고 싶어진다. 그래서 요즘 나는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속담에 대해 몇 번을 곱씹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겸손하게 살라는 뜻만 담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농작물이 익어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가지는 그동안 뺏뺏했던 고개가 꺾여지고 휘어진다. 자라나는 새싹일 때는 알지 못했던 제법 묵직한 무게에 온몸이 휘청거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뿌리도 깊어지고 잎도 굵어진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고개가 수그러드는 모양인 것 같다. 내가 겸손해지려고 부러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내 고향은 서울이다. 나는 흑석동에서 나고 자란 아빠와 서교동에서 나고 자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고, 스물다섯 살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살았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도시 아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고 자라 흙을 밟아본 적 없는 ‘아파트먼트 키드’인 것이다. 그런 나에게 이곳 농촌은 사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친숙한 고향의 느낌보다는 낯설고 새로운 경험으로 넘쳐나는 곳이다. 그동안 내가 보고 배웠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들과는 또 다른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느끼면서 지낸다.

이곳 농촌 지역에서 나는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 목요일마다 동일1리 노인회관에서 마을 할머니들과 한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와도 생전 함께 지내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이렇게 어르



그동안 내가 보고 배웠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이곳에서 나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들과는 또 다른 것들을  
 새롭게 배우고 느끼면서 지낸다.



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익숙지가 않아 처음에는 애를 꽤 먹었다. 처음 한글수업을 하기로 했을 때, 할머니들은 한글을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두 손을 내저었다. 할머니들이 자식이나 손자들에게 편지도 쓰고, 직접 쓴 시로 마을에 전시도 하는 등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법한 귀농 생활의 모습을 꿈꿨던 나에게는 꽤나 묵직한 현실의 벽이었다. 그래서 멀치 똥을 빼고 있는 할머니들 옆에 기어이 붙어 멀치 한 줌을 손에 쥐고, 화투를 치는 할머니들께 가르쳐달라고 조르며 두어 달을 지내면서 할머니들과 말 한 두 마디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할머니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감대도 생기게 되고 알고 보면 비슷할 점들을 발견하면서 금방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할머니들과 나의 삶은 공감할 만한 부분이 없었고, 전혀 다르다고 느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았다. 국민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사이렌이 울려 인근 뒷산으로 허겁지겁 뛰어 올라가 숨었던 이야기, 배를 타고 가족들과 육지로 도망치려고 짐을 다 싸두었는데 붙잡혔던 이야기, 그렇게 사람들을 신고 떠났던 큰 배가 거센 파도에 전복되어 배에 탔던 삼촌이 돌아가신 이야기, 하루 종일 솔나무 가지를 주워 뿔감을 만들었던 이야기나 바다에 나가 얼굴만큼 커다란 전복을 잡았고 어망에 걸린 쥐치가 그 안에서 새끼를 낳아 정말 기뻐했던 이야기, 생일이면 쌀을 빵아 떡을 만들었는데 콩으로 이름을 쓰면 그렇게 좋았다는 이야기는 내게는 낯설고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의 유년 시절에는 애플사에서 나온 신기종 애플프리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엄마가 사주지 않아 일주일 동안 입을 다물었고, 주말이면 호수공원에서 아빠에게 롤러블레이드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있다. 어학원



에서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는 시험에서 두 번이나 떨어져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의 이야기는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낯설게 느껴질까. 나는 아침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챙겨먹고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다양한 지식들을 익히고 배웠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잘하는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고, 나중에 뭐가 될 것인지 무궁무진한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었다. 부모님은 언제나 내가 되고 싶은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응원해주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사는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갔고 불가능할 게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이었다.

할머니들에게 할머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하고 묻는 것만큼 바보같은 질문도 없다. 그 당시에는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 무엇이나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이다. 글자를 더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수가 없었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싶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웠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었다. 사는 건 원래 그런 거라고 했다.

엄마는 나를 그런 할머니들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엄마는 누누이 내게 세상을 보는 만큼만 보고, 먹는 만큼만 먹으면서 살지 말라고 강조했다. 결혼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라고 했다. 학교든 학원이든 배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했고, 엄마와 아빠보다 더 좋은 곳에서 일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엄마와 나이가 들어서도 회사에 다니는 아빠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보다 더 대단한 무언가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으니까. 어찌면 엄마도 나처럼 할머니들처럼은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악물고 삶을 개척해 나갔던 것일까, 돌이켜본다.

“제가 원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 할머니들께 내 고민을 자주 털어놓는 편인데, 말을 꺼내자 할머니들이 알만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그랬어, 하신다. 그러다 나중에는 엄마만큼만 살아도 좋겠다 싶지, 하시면서. 그 말에 나도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할머니들과는 전혀 생각이 다른 줄만 알았는데 모처럼 같은 부분을 발견했다.

나중에는 엄마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른다며 엄마한테 잘하라고 할머니들이 입을 모아 말하신다. 엄마가 멀리 타지에 나와 이렇게 고생하며 농사짓고 있는 딸을 보면 속이 터질 거라며 서울에 있는 엄마 대신 나를 걱정해주시기도 한다. 살다보면 가슴 터지게 억울한 일부터 해서 억장 무너지게 슬픈 일, 눈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든 일들이 많기도 많다고 한다. 남들 사는 모습은 멀리서보면 좋아 보이고 나보다 처지가 나아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속이 문드러지고 고약한 꼴들로 가득 차 있다고 사는 게 원래 그런 모양이라 그래도 그저 묵묵히 버티고 사는 게 사는 거란다.

내일은 마늘 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부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일이 취소되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내일까지도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워낙 날씨가 변덕스러운 탓에 지켜봐야 하는 일이다. 비가 일찍 그치거나 빗줄기가 얇아지거나 먹구름을 뚫고 해가 비치면 다시 일을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이면 다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종일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려야 한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던 때를 생각하면 비가 와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기가 막힌 일이다. 게



다가 바람이 많이 불거나 비가 많이 내리면 마늘이 생각보다 잘 자라지도 않는 데다 그렇게 기를 쓰고 하루 종일 마늘을 뽑아도 하루에 고작 내가 뽑을 수 있는 것은 몇 포대 되지도 않는다. 그래도 이제는 별 수 있나, 다음번에는 더 나아지겠지 하고 만다. 그렇게 화를 내거나 기를 써도 달라지는 게 없을뿐더러 사는 게 원래 그런 모양이다. 하고 제법 덩덤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것에 대해 분탕거리며 종종거리는 대신 요즘 날이 풀리면서 부쩍 일이 많아지고 바빴는데 모처럼 한 숨 쉬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로 한다. 내일은 빗소리를 들으며 거실에 대자로 몸을 펼치고 누워 멀리 서울에 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야겠다. 나도 엄마처럼만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나처럼 빨갭게 잘 익은 토마토를 잔뜩 따 한 상자 가득 담아 보냈으니 이제 허리 좀 펴고 살아도 될 거라고 그동안 이렇게 내가 잘 익을 때까지 허리가 휘게 버티워서 고맙다고 말해야겠다. 그러니 이참에 비가 시원하게 왕창 쏟아졌으면 좋겠다. 물론 비가 내리지 않아도 그건 그 나름이지만 말이다.

## 시골 언니



함은미

나의 인생은 결혼 전과 결혼 후로 나눌 수 있다. 나는 모험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익숙하지 않은 그 무언가에 도전하는 도정정신도 없이 평범하고 안정적인 매일 매일이 행복했다.

그런 내 삶을, 내 성격을 180도 바꾼 사람은 바로 우리 남편 이었다.

나보다 4살 연상. 그 당시 교회 회장 오빠였던 남편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요즘 말로 코드가 잘 맞았다. 내 결혼상대의 우선순위는 가치관이 같은 사람 이었는데, 이 사람과 말이 잘 통하고, 서로 맞장구치는 대화주제가 많아졌다. 2년을 같은 교회 다니며 봐왔는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 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날따라 이상하게(?) 멋있어보였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 좀 더 친한 사이로 만나자”라고 내가 먼저 말

을 꺼냈다. 그렇게 연애 후 결혼을 하고 나니 인생이 2배쯤은 더 행복해졌다.

결혼1년 후 나는 '엄마'가 되었고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돌보는 내 역할에 충실했다.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났고 전셋집에서 우리명의로 된 집으로 이사도 하며 참 많이 행복하다고 느꼈다. 아이가 첫돌이 지나자 남편은 나에게 뜬금없이 "귀농"을 제안했다.

귀농제안의 이유를 들어보니 앞으로는 산업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위협도 많은데, 농업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 말했다.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었고,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식물을 키워도 정성이 없는 탓인지 맨날 내 화분은 말라죽곤 했었다. 그래도 남편은 내 인생에 멘토 같은 존재였기에 그 사람이 말하는건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앞뒤 따지지도 않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 세 식구는 시부모님이 계신 부안으로 이사를 왔다.

전에 살던 아파트처럼 좋은 집도 없었다. 시아버지 사무실 한 칸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단칸방에 들어가 세 식구가 살았다. 집은 작았지만 집 앞에 400평의 정원이 있었다. 매일아침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 식물들을 보는 것이 힐링 이었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는 것이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것도 잠시, 귀농 후 생활의 불편함 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다. 귀농하기 전에는 소아과를 갈 때면 아이와 잘 맞는 의사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골라가 진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였다. 밤중 아이가 아프면 야간진료 하는 병원으로 찾아가면 됐었는데, 여기에 와보니 소아과 한 개가 왜 말?

둘째아이 임신했을 때는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어 차를 타고 1시간씩 이동해 병원을 찾아가곤 했다. 집근처에 24시 운영되는 병원과 마트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귀농 후 친구들을 만나면 다들 내 생활을 궁금해 했다. “거기서 뭐하고 사니?” “불편하지 않아?” 물어보면 내가 키운 꽃이랑 우리집 정원을 보여주며 놀러오라고 말했다. 친구들이 놀러와 정원에서 삼겹살도 구어 먹고 바닷가로 드라이브도 갔다. 그냥 시골이니깐, 도시보다는 불편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자연과 가까운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부러움 반 걱정 반이었다.

귀농을 하면서 남편은 한국농수산대학 산림학과에 입학했다. 농업에 대해 잘 모르니 우선 배워야 한다는 그의 생각에 나도 동의를 했다. 귀농 후 우리집 가장은 일터가 아닌 학교로 갔고, 그를 대신해 나는 경제활동을 해야 했다.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해오던 나는 변화된 환경적, 경제적 생활패턴이 불편했고 긴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 당시 농촌에서 교육체험 사업을 하겠다고 여성 1인기업으로 창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자 대표가 되긴 했지만 농촌에 대해 아는게 별로 없어 모든 면에서 어리바리했다. 귀농 후 첫 해 1년은 농촌에 적응하는 한해였고, 2년차에는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한해였다. 3년차 나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의 시간이 찾아 왔는데, 이번 한해동안 밭님넷이라는 사업장을 알리지 못하면 그냥 사업을 접는다는 생각으로 임했다.

### <시골언니는 청년사업가>

‘밭님넷은 농촌교육농장이다.’ 이 간결한 한 줄을 답하기 위해 나는 수없이 많이 엮어지고 넘어졌다. 우선 당장에 생활비가 필요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선생님이 사정이 생기셔서 대체교사로 일

하기도 했고, 시급을 받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도 했었다. 생활이 어려웠어도 꿈은 크게 그렸었는데, 그 당시 우리부부는 ‘스마트안내판’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 손에 쥘 실용신안등록증이 감격스러워 이것에 계속 투자해 국제 미국특허까지 얻었다. 남편의 특허상품을 더 많이 상용화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벗님넷에서 해야할 내 진짜 임무였다. ‘스마트안내판’은 근거리무선통신(NFC) 태그가 목재 안내판 내부에 탑재되어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정보가 송출되는 장치인데, 나는 농촌에 ‘스마트안내판’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미션게임”이다.

스마트 미션게임은 다양한 체험과 관광거리를 하나의 코스로 만들고, 사용자로 하여금 이 코스를 이동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이다. 관광지를 순회 할 때마다 안내판을 통해 재미있고 참신한 미션을 제시해주면 즐겁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마침 농장 옆쪽에 석정문학관이라는 시 문학관이 있었다. 이 문학관은 전국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다. 이를 활용하여 미션게임을 만들면 사람들이 시문학 미션게임을 하러 우리농장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체험프로그램을 홍보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해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활동기록을 유지관리 하는 국가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받기 시작했다. 처음 프로그램을 인증받은 것을 토대로 하여 초, 중, 고등학교와 복지 관련 시설, 학원, 종교단체 등을 방문하며 직접 홍보를

2017년 한해 동안 벗님넷을 알려야 했기에

수많은 정부지원사업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며, 도전한 것 중 반절정도가 성과로 돌아왔다.



했다. 혼자서 하려니 막막했던 일들이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된다는 것을 몸소 배웠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라북도권에 있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많이 방문해 주셨다.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 어떻게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다. 그러다가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절차가 있었다. 우선 입점조건을 모두 맞췄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다. 기존에 입점한 기업들을 보면 물품입점은 다양했으나 체험서비스 상품은 흔치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니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담당 서기관님께 전화가 왔다.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한번 방문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기회다!’라고 생각했다. 그동안의 체험학습 진행 실적들과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담당 서기관님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벅넘넷의 이야기에 경청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소규모 농가들의 체험 프로그램도 조달청에 많이 등록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며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그렇게 1년의 시간 끝에 벅넘넷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1일형 현장체험학습 서비스에 전국최초로 입점하게 되었다. 조달청의 사건을 계기로 불가능은 없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작고 미약한 것 같지만 끝까지 버티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쟁취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다.

2017년 한해 동안 벅넘넷을 알려야 했기에 수많은 정부지원사업과 아이디어 공모전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며, 도전한 것 중 반절정도가 성과로 돌아왔다. 농촌 교육체험 사업을 키워가며 각종 공모전을 준비하다보니 매일 시간이 부족하고 잠도 부족하였지만 하나 둘 인정받고 있다는 뿌듯함에 몸

을 더 바빠 움직였다. 귀농을 하며 언젠가는 6차산업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꾸던 스타트업이 창업 3년 만에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을 받았고, 농촌 교육농장 품질인증을 받으면서 벚넛넷은 점점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색깔을 찾아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창업 3년의 시간동안 벚넛넷도, 나 자신도, 우리가족도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면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 <꿈을 품은 시골언니>

내 나이 31살, 아직도 꿈이 많다.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조경학과에 입학했다. 농촌의 다양한 경관과 역사 문화자원을 조경이라는 학문으로 바라보니 농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였다. 자연스레 매일 보는 꽃과 나무에 관심이 더 많이 갔다. 11년전 대학에서 배운 심리상담학과 조경학이 어우러지니 생태와 심리를 융합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더욱 다양하게 떠올랐다.

현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격인 산림치유지도사(1급)과정 수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주경야독이다. 옛 선조들도 이렇게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지혜와 지경을 확장시켰을 것이다. 억지로 하고자 하면 힘들었을 텐데, 내 마음이 기뻐서 알아서 일을 찾아 하니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요즘은 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을 많이 한다. 그중에 깨닫게 된 것이 가족과 함께 한다는 것이 사람에게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가족간에 서로 인정하고 사랑받으며 살

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힘인 ‘자존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농촌융복합사업을 꿈꾼다.

현재 아버님이 태어나셨던 집터 옆으로 소규모 6차산업 복합공간을 지을 계획이다. 옛그저께 토지공사에서 분할측량을 마쳤으며 이제 그곳의 땅을 구입할 자금을 준비 중이다.

앞으로 그 공간에서는 삼대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35년간 땅을 일궈 오시고 실내조경에 대해 남다른 감각이 있으신 아버님과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 하셨던 어머니, 그리고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체험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내가 함께 그곳을 일터 삼아 농촌 치유관광을 위한 일들을 만들어 갈 것이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며, 다양한 사람들이 마음과 육체에 휴식을 얻고 가고 감정의 평안함을 얻고 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자 한다.

그 준비의 과정이 지금이며, 지금 배우고 일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015년 부안으로 귀농하여 농업 스타트업이 된지 4년째이다. 남편은 여전히 학생이고, 나는 농촌 청년사업가로 교육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되었다. 우리집 식구는 4명이 되었고, 사업 4년이 되니 연매출이 억 단위로 변했다. 올해 한국농수산대학 산림조경학과 현장교수로 위촉되었으며, 청년창업농에 선발되었다. 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농업”을 꿈꾸며 농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꿈이 있기에 시골언니는 오늘도 참 즐겁게 바쁘다.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노초벌벌\* 이야기로 들려주세요  
손로로

---

발행일 2018년 7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신문